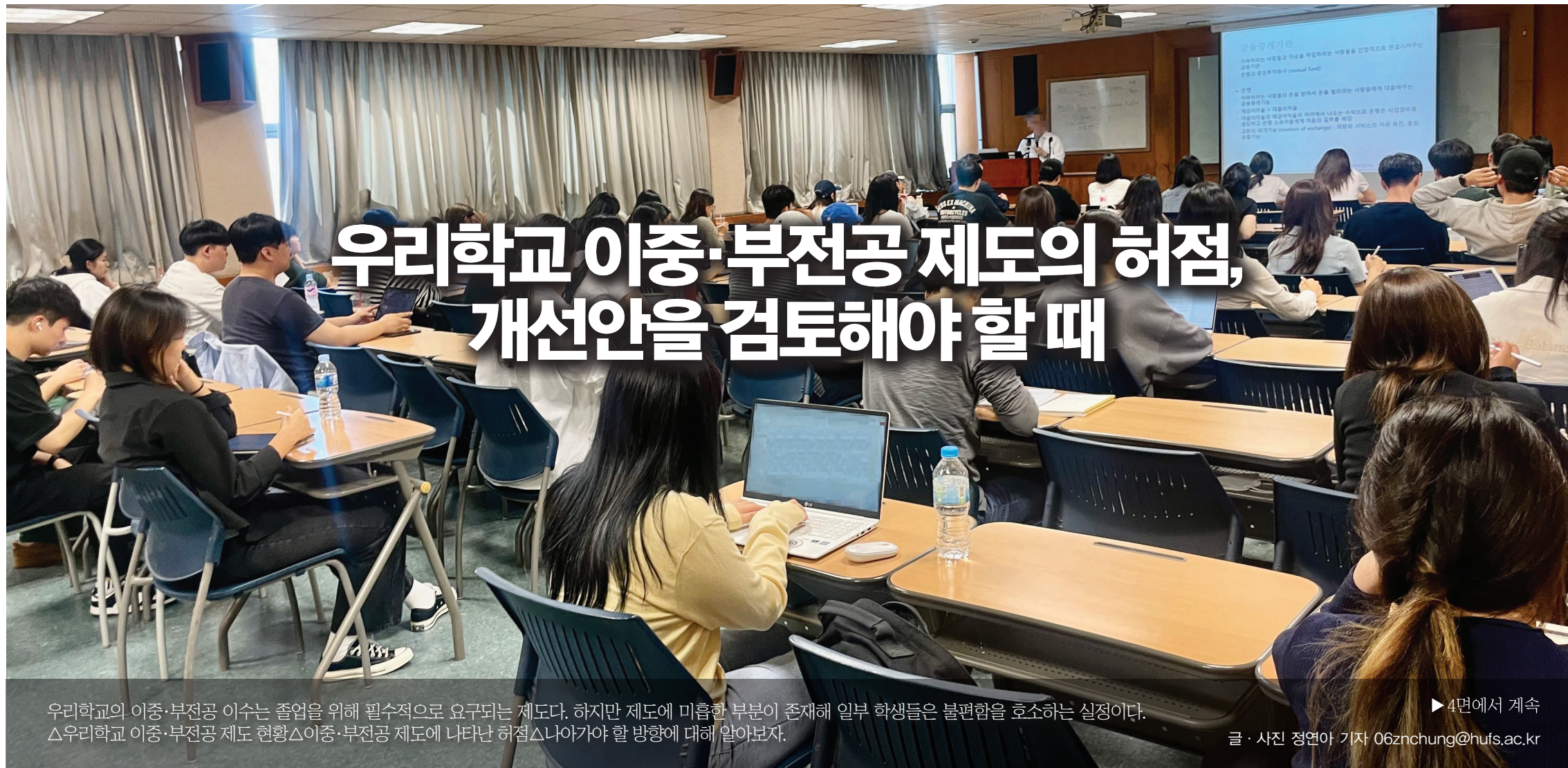


[기획] >> 5면
공공인재개발원 운영

[기획] >> 7면
도서관 자료 훼손·연체 문제

[사회] >> 8면
철도노조 파업

[인물] >> 12면
전종우 교수를 만나다



우리학교 이중·부전공 제도의 허점, 개선안을 검토해야 할 때

우리학교의 이중·부전공 이수생은 졸업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제도다. 하지만 제도에 미흡한 부분이 존재해 일부 학생들은 불편함을 호소하는 실정이다. △우리학교 이중·부전공 제도 현황△이중·부전공 제도에 나타난 허점△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 4면에서 계속

글 · 사진 정연아 기자 06zncchung@hufs.ac.kr

우리학교 창업보육센터, 스타트업 마케팅 역량 강화 창업아카데미 개최해

우리학교 창업보육센터는 지난달 17일 경기도 일자리재단과 공동으로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 공학관에서 ‘용비 창업아카데미 2기(이하 용비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경기도 용인시에 소재한 우리학교 창업보육센터는 △사업장△시설△초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자 또는 예비 창업자에게 작업장을 비롯한 시설을 저렴하게 제공한다. 더불어 △경영△기술 지도△세무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사업과 지원을 통해 창업 위험 부담을 덜어주는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창업보육센터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역할은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스타트업(Start-Up)의 판로개척 및 마케팅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열린 이번 용비 아카데미의 ‘용비’는 ‘경기도 용인시’의 ‘용(Yong)’과 ‘창업보육센터(Business Incubation Center)’의 ‘비(이하 BI)’의 합성어로 용이 비상하듯 스타트업의 비상을 기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행사엔 창업보육센터의 도움을

받는 BI 입주기업 및 관내 예비창업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강남대학교△단국대학교△명지대학교△용인예술과학대학교 등 각종 대학교 창업보육센터와의 협력으로 준비됐다.

이날 행사에선 오현주 ㈜마마포레스트 대표가 ‘창업동기와 가치를 담아내는 상표의 스토리텔링’이라는 주제로 스타트업에 상표화가 필요한 이유와 창업 마케팅 방법에 대해 사례 위주로 생동감 있게 전달하며 흥미를 끌었다. 은창선 우리학교 창업보육센터장은 “성공한 기업가의 성공 비법 공유가 많은 예비 창업자와 경기도 용인시 BI 입주기업에 큰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산학 간 연계를 통해 경기도 용인시의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나림 기자 07narim@hufs.ac.kr

우리학교 발트 3국 연구사업단, 1차 학술회의 개최해

지난 15일 우리학교 발트(Balt) 3국 연구사업단은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대학본부 대회의실에서 EU연구소 발트연구소 및 러시아 연구소와 공동으로 제1차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홍완석 국제지역대학원 원장(이하 홍 원장)의 인사말과 박노벽 전 주러시아 대사의 기조연설로 시작된 이번 학술회의에선 ‘발트 3국의 탈러시아화와 경제 발전 전략’을 주제로 스라트비아△리투아니아△에스토니아로 구성된 발트 3국의 최근 동향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의 장이 펼쳐졌다.

세미나의 첫 번째 순서로 △김보철 국제학부 교수 겸 EU연구소장(이하 김 소장)△라승도 러시아연구소 연구교수△서진석 EU연구소 발트연구소 책임연구원이 각각 △발트 3국의 국제법 현황과 국제조약의 구조△총체적 반러시아 정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발트 3국의 반러시아주의△발트 3국 내 러시아 디아스포라의 사회적 지위 변화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발표자들은 이러한 주제를 통해 발트 3국의 탈러시아화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두 번째 순서로 발트 3국의 성장 잠재력과 경제 발전 전략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김선례 러시아연구소 교수△이대식 태재미래전략연구원 박사△이하얀 EU연구소 인문사회연구사업단 연구교수는 각각 스라트비아의 성장 잠재력과 경제 발전 전략△에스토니아의 성장 잠재력과 경제 발전 전략△리투아니아의 성장 잠재력과 경제 발전 전략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발트 3국 연구사업단의 연구책임자를 맡은 홍 원장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통해 국내 최초로 발트 3국 연구를 시도하게 된 배경을 소개하며 이번 학술대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세미나의 공동 주최자이자 발트연구센터를 개설한 김 소장은 이번 세미나가 국내에서 본격적인 발트 3국 연구의 시작을 알리는 분수령이 됐다고 평가했다.

장휘영 기자 07hwio@hufs.ac.kr

“국내 최고의 English Language Teaching Program” 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대학원(야간) 2024학년도 전기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1. 2024학년도 전기 입시일정

구분	특별전형(First Round)	일반전형(Second Round)
원서접수	2023.09.22(금) ~ 10.06(금)	2023.11.06(월) ~ 11.20(월)
고사장 발표	2023.10.18(수) 15:00	2023.11.29(수) 15:00
면접전형	2023.10.21(토) 10:00 예정	2023.12.02(토) 10:00 예정
합격자 발표	2023.11.02(목) 15:00	2023.12.14(목) 15:00
등록예치금 납부	2023.11.06(월) ~ 11.10(금)	2023.12.18(월) ~ 12.22(금)

*위 전형계획 및 시험일정은 정원 증원상황 및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모집학과 및 전공

가.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Teaching
나. Department of ELT Materials & Technology

3.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4년 2월 졸업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4. 접수방법

• STEP 1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
• STEP 2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 및 기타 구비서류 교차처 제출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됩니다.

5.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6. 전형장소: 서울캠퍼스 (자세한 고사장 및 고사일은 추후공지)

7. 기타사항

가. 신입생 입학성적 우수장학금(학과별 약간명)

나. 재학생 성적우수장학금(학과별 약간명)

다. 현직 교사 장학금(매학기 지급)

라. 학점 인정 혜택 (한국외대 TESOL 전문교육원 수료자, TESOL 관련

석사학위소지자, TESOL 자격증 취득자)

마. TESOL 연구과정(자격증 과정)수료자 우대

바. 북수학위프로그램(템플대학교), 3+1 프로그램(하와이대학교)

사. Internship 프로그램(California State University, Selkirk College)

아. 추가학점 이수트랙 신설

(논문·졸업연구보고서대체, 2021년 신입생부터 적용)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tesolgs.hufs.ac.kr> 및 모집요강 참조

9. 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대학원 교학과

TEL. 02-2173-3521 ~ 2FAX. 02-2173-358
(우) 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대학원
Graduate School of TESOL,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2024년 전기 신입생 모집

◆ 전형일정

구분	특별전형	일반전형
원서접수	2023.10.4(수) 9:00 ~ 10.11(수) 16:00	2023.11.14(화) 9:00 ~ 11.20(월) 16:00
면접전형	2023.11.4(토) 10:00부터	2023.12.16(토) 10:00부터

* 접수방법 : ①온라인 원서접수-②입학원서 출력 및 기타 지원서류 제출(방문 또는 우편)-③지원자 유의사항 및 면접장소 확인-④구술(면접)시험 응시-⑤합격자 확인



◆ 지원자격

1. 특별전형

1) 석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학위과정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2024년 2월(일본 소재 대학 졸업자는 3월) 취득 예정자
나. 석사학위 취득자 중 평점 평균이 3.0(4.5 만점 기준) 이상인 자
※ 평균기준 : 3.5(5.0 만점), 2.8(4.3 만점), 2.5(4.0 만점), 85(100점 만점) 이상
다.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나. 학사과정의 전공과 관계없이 지원가능

2) 박사학위과정

가. 국내·외 대학원(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포함)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2024년 2월(일본 소재 대학 졸업자는 3월) 취득 예정자
나. 석사학위 취득자 중 평점 평균이 3.5(4.5 만점 기준) 이상인 자
※ 평균기준 : 4.0(5.0 만점), 3.3(4.3 만점), 3.0(4.0 만점), 90(100점 만점) 이상
다. 석사학위 취득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대학원장의 인정을 받은 자
나. 석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학과(전공)와 동일계열에 한하여 지원가능

2. 일반전형

1) 석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학위과정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2024년 2월(일본 소재 대학 졸업자는 3월) 취득 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다. 학사과정의 전공과 관계없이 지원가능

2) 박사학위과정

가. 국내·외 대학원(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포함)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2024년 2월(일본 소재 대학 졸업자는 3월) 취득 예정자
나. 석사학위 취득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대학원장의 인정을 받은 자
다. 석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학과(전공)와 동일계열에 한하여 지원가능

◆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 모집과정 및 학과/제출 서류 등 세부사항 :
<http://gra.hufs.ac.kr> 홈페이지 모집요강 참조

◆ 우편제출

02450 서울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교학처 사무팀(대학원 1층 102호)
대학원 입학담당자 앞

◆ 입시문의

02)2173-2386, 2397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Graduate School,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2023 대동제 퀸쿠아트리아, 청록빛으로 물든 캠퍼스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이하 설캠)에선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가을 대동제인 퀸쿠아트리아(QUINQUATRIA)가 개최됐다.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된 퀸쿠아트리아는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지혜의 여신 미네르바를 기념하는 로마인들의 축전 이름에서 비롯됐다. 이번 퀸쿠아트리아의 기조는 '적록'으로 가을의 붉음과 초록을 기록한다는 의미가 담겼다.

축제 첫 날인 지난 19일엔 △동아리 부스 운영△영화 상영△캠핑△푸드트럭 행사가 진행됐다. 우리학교 설캠 총학생회(이하 총학)는 이번 퀸쿠아트리아 준비 과정에서 우리학교 학생들이 축제의 재미를 체감하기 위해에 목표를 두었다. 운동장에 가지 않아도 학교 전역에 다시 부스를 설치하여 축제 분위기가 물씬 나게 하였으며 우리학교 응원가와 응원구호를 만들어 제 1회 응원제를 실시했다. 더불어 이번 축제만의 굿즈를 만들어 판매하며 브랜드 효과를 톡톡히 했다. 총학은 “이번 행사의 가장 특별한 점은 처음 진행하는 응원제다. 응원가를 제작하기 위해 여러 저작권자에게 연락하고 무대팀장인 부총학생회장이 개시한 곡이라 애정이 간다”며 “응원제 당일 많은 학생들이 함께 응원구호를 외쳐준 덕분에 기획 과정에서 느낀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졌다”고 전했다. 저녁 7시 30분부터 잔디광장에서 영화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 상영됐다. 또한 축제 기간 내내 법학관 앞 잔디에 우리학교 상징인 ‘부000’ 대형 풍선을 설치해 포토존을 운영하는 등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며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가 마련되기도 했다.

축제 둘째 날인 지난 20일엔 전날과 마찬가지로 캠퍼스 전역에 주간 부스를 설



▲아티스트의 공연에 환호하는 우리학교 학생들의 모습

치해 축제 분위기를 이어나갔다. 이 날은 지속되는 우천으로 인해 잔디광장과 미네르바 공원에서 진행된 ‘적록’과 ‘초록’이 전면 취소됐다. 박준혁(응인 23) 씨는 “학우들의 안전을 위해 우산 사용을 금지하고 선착순 1000명에게 우비를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안전하게 축제가 마무리 된 것 같다”고 전했다. 이후 흡스갓 탤런트(이하 HUFs’ GOT TALENT)가 진행해 학생들이 다양한 가을 선보이는 시

간을 가졌다. 이어 이날 축제의 첫 아티스트로 가수 적재가 방문해 멋진 공연을 선보였다. 아티스트의 공연이 끝난 후엔 외대교육방송국(이하 FBS)가 주최한 가요제가 진행됐다. 예선을 가진 참가자들이 본선에 올라 제각기 최선을 다해 멋진 무대를 장식했다. FBS 가요제가 막을 내리고 다시 한번 가수 로꼬(LOCO)의 공연이 상연되며 뜨거운 열기가 이어졌다.

셋째 날인 지난 21일에도 축제는 순탄하게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둘째 날 우천으로 인해 취소된 공연을 다시 선보이기 위해 예정된 시간보다 30분 앞당겨진 17시에 시작됐다. 축제의 대미를 장식한 마지막 날엔 △HUFs’ GOT TALENT 퀸쿠아트리아 응원제△아티스트 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이번 축제에서 최초로 퀸쿠아트리아 응원제가 개최됐다는 점도 주목 할 만하다. 우리학교 응원단인 아이기스(AEGIS)와 중앙밴드 동아리 외인부대의 합동공연이 뜨거운 응원의 막을 열었다. 한편 우리학교 졸업생인 가수 윤하(중앙·일본어 07)가 우리학교에 방문해 응원단 아이기스와 함께 무대를 꾸미기도 했다. 이후 보이넥스트도어(BOYNEXTDOOR)와 지코(ZICO)의 공연이 이어지며 퀸쿠아트리아는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구동한(중국·중언문 17) 씨는 “이번 퀸쿠아트리아 축제에서 다채로운 콘텐츠를 즐길 수 있어서 좋았다”며 “△국제학사△법학관 앞△사이버관△역사관 등 포토부스가 많아 학우들과 소중한 추억을 남길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나림 기자 07narim@hufs.ac.kr

재하노이 우리학교 동문회, 학교발전기금 기부

지난달 17일 우리학교 재하노이 동문회(이하 하노이 동문회)가 학교발전기금 1,500만 원을 기탁했다. 현재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엔 베트남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교민 16만 명 중 절반에 달하는 7만여 명이 살고 있다. 그중 100여 명의 우리학교 동문으로 구성된 하노이 동문회는 상호 친목과 단합을 통해 모교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1월 박정은 우리학교 총장(이하 박 총장)은 우리학교와 하노이국립대학교(Han Thi Huong) 간의 업무협약 체결을 위해 베트남 현지에 방문했다. 하노이국립대학교는 호치민국립대학교(Đại học Quốc gia Thành phố Hồ Chí Minh)와 함께 총리 직속으로 설립된 베트남의 양대 연구중심 대학이다. 두 대학은 약 30년간 한국어 수업을 개설해 학생들을 가르쳐 왔으며 지난 2012년엔 한국어문화학부를 정식으로 출범해 우수한 한국어 전문인력을 배출해 온 바 있다. 박 총장은 하노이 방문 당시 도오 투안 밍(Do Tuan Minh) 총장과 랴 랑 동(Lam Quang Dong) 부총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을 만나 두 학교 간의 교육 교류 협정을 체결하고 우수 학생 유치를 위한 신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박 총장은 업무협약 체결 당시 하노이동문회와의 교류의 자리에서 “교육의 발전과 인재 양성 및 후배들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위해선 현지 우리학교 동문 선배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이 절실히 필요



▲우리학교 재하노이 동문회 기념 촬영 모습 (출처: 우리학교 홈페이지)

하다”고 전했다. 이후 하노이동문회는 지난 5월부터 지난 7월까지를 모교 사랑 실천을 위한 특별모금 기간으로 정한 뒤 적극적인 모금 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하노이 동문 40여 명이 모교 발전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총 1,500만 원의 기금을 모금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하노이동문회의 이번 특별모금은 단순한 동문 간의 친목 도모를 넘어 모교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단합된 마음을 실천하는 출발점이 됐다. 이를 계기로 하노이 동문 사회의 소통과 교류뿐만 아니라 우리학교와 동문회 간 교류에 대한 의지도 고취됐다.

박 총장은 “먼 타국에 있으면서도 모교에 대한 굳건한 성원의 마음을 담아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동문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발전기금으로 대학 발전과 인재 양성에 전심을 다할 것이다”고 전했다. 이에 안성구 하노이동문회 회장은 “이번 모금은 먼 타지에서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견뎌온 동문의 열정과 응징력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던 기회였다”고 전했다. 또한 “이 기금이 우리학교의 훌륭한 후배 양성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분야에 쓰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주호(국제지역·한국 23) 씨는 “동문회의 모금 덕분에 발전기금이 많이 모였다고 들었다”며 “앞으로도 이런 모금을 계기로 학교가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하노이동문회가 보여준 모교 사랑의 정신이 전체 동문 사회에 애교심을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휘영 기자 07hwio@hufs.ac.kr

우리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 서울지역 15개교와 공동으로 ‘서울청년 르네상스’ 개최해

지난 6일 우리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운영하는 서울 소재 15개 대학교가 공동으로 개최한 ‘서울청년 르네상스’ 프로젝트 일환으로 ‘다국적 기업 현장자 토크콘서트’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대학생과 지역 청년들에게 세계화 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다. 우리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는 지난 2015년부터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대학일자리센터사업을 통해 원스톱 진로취업지원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우리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진로 취업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각종 온·오프라인 기반시설 구축△일자리 매칭 및 지역 거버넌스(governance) 체계 심화 및 발전△진로취업 교육 강화△전문 통합 상담 체계 마련 등 우리학교 학생과 지역 청년들의 원활한 취업과 사회 진출을 돕고 있다. 또한 지난 2021년부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사업의 운영기관으로 선정돼 향후 5년간 진로취업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이 전보다 체계화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울청년 르네상스는 △졸업생△지역 청년△재학생의 성공적인 사회진출과 취업지원을 목표로 하

는 지역공공협력 프로젝트로 지난 1일부터 21일까지 대학별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다. 우리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는 이번 행사에 다국적 해운회사 ‘한국 머스크(Maersk)’와 세계적인 맥주 회사인 ‘에이비 인베브(AB InBev)’ 한국지사의 현직자를 초청해 외국계 기업 등 해외 취업을 목표로 하는 지역 청년들에게 현직 실무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다. 외국계 기업으로 이직을 준비하고 있는 한 참가자는 “주변에서 자주 접하기 힘든 다국적 기업의 현직자와 취업과 채용에 대해 직접 소통하면서 향후 진로에 대한 전반적인 구상을 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온라인 프로그램을 통해 부담 없이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민정 우리학교 학생·인재개발처장은 “이번 특강에선 토크콘서트 형식을 통해 평소 만나기 어려운 외국계 기업 현직자의 취업 준비 및 회사생활 등을 탐구하며 학생들에게 쉽게 다가가고자 했다”며 이번 특강의 취지를 밝혔다.

김나림 기자 07narim@hufs.ac.kr

우리학교, 넬슨 만델라 재단 번 해리스 대표 초청 국제 세미나 개최해

지난 13일 우리학교 정보·기록학연구소는 우리학교 일반대학원 정보·기록학과와 공동으로 넬슨 만델라(Nelson Mandela) 등 인물 기념재단의 기록 보관 활동을 주제로 한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박태선 김근태재단 아카이브팀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선 넬슨 만델라 재단의 번 해리스(Verne Harris) 대표와 라지아 살레(Razia Sahle) 아카이브 소장이 재단 기록보관소의 활동을 소개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진실 화해 위원회 위원과 남아프리카 역사 아카이브의 책임자 등을 거쳐 현재 넬슨 만델라 대학교 교수로 활약하고 있는 번 해리스 대표는 국제 기록학 분야에 다양한 이론과 개념을 정립한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아키비스트(archivist)다. 그는 디지털 시대 아키비스트가 단순한 기록물 보관자가 아닌 기록의 맥락을 만들어 내는 ‘큐레이터(curator)’라고 강조한 바 있다.

또한 독일 빌리 브란트 재단(Bundeskanzler Willy Brandt Stiftung) 대표인 볼프람 호펜슈타트(Wolfram Hoppenstedt) 박사는 빌리 브란트 재단의 기록보관소를 소개하고 재단의 기록보관소 활용 및 공공역사의 활동에 대해 발표했다. 빌리 브란트 재단

은 브란트 전 총리의 연설문과 저서 등 많은 수의 저술자료를 비롯한 다양한 기록자료를 관리하는 기록보관소를 운영하며 이를 활용한 공공역사 교육·연구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 행사엔 박준원 우리학교 정보·기록학과 겸임교수(이하 박 교수)인 ㈜위즈메타 대표가 두 재단의 동영상 가공해 VADs(Video As Data Service) 기반 큐레이션 서비스를 시연할 예정이다. 박 교수가 선보인 VADs 큐레이션 서비스는 동영상에 포함된 내용을 △인물△주제△키워드 등 다양한 관심사에 따라 지능적으로 분류해 누구나 자유롭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이번 세미나를 기획한 노명환 소장은 “이번 세미나는 해외 기록학 전문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그간 우리학교 정보·기록학과와 정보·기록학연구소가 추진해 온 다양한 연구·교육 활동의 의미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며 “두 재단의 동영상상을 가공해 VADs 큐레이션을 하는 작업은 디지털 시대 아키비스트가 곧 큐레이터라는 번 해리스 대표의 주장과도 일맥상 통한다”고 전했다.

장휘영 기자 07hwio@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행정언론대학원(야간) 2024학년도 전기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1. 2024학년도 전기 입시일정

구 분	특별전형(First Round)	일반전형(Second Round)
원서접수	2023.09.22(금) ~ 10.06(금)	2023.11.03(금) ~ 11.20(월)
고사장 발표	2023.10.18(수) 15:00	2023.11.29(수) 15:00
면접전형	2023.10.21(토) 10:00 예정	2023.12.02(토) 10:00 예정
합격자 발표	2023.11.03(금) 15:00	2023.12.15(금) 15:00
등록예치금 납부	2023.11.06(월) ~ 11.10(금)	2023.12.18(월) ~ 12.22(금)

*위 전형계획 및 시행일정은 정원 총원상향 및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모집학과 및 전공

가. 공공감사·정책학과(공공정책, 공공감사)
나. 외교안보학과(외교안보, 북한, 국가안보)

3.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4년 2월 졸업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4년 2월 졸업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다. 군사 안보 전문 분야(군, 정보기관, 국가 보안 분야 등)에서 최소 0년 이상의 현장 경험을 보유한 자

4. 접수방법

가. STEP 1 -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
(정치행정언론대학원 홈페이지-입학안내-대학원 입학 안내-대학원 원서접수)
나. STEP 2 -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 및 기타 구비서류 교학처 제출

*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5.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 면접시험은 출석면접을 원칙으로 하고, 불참 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 ‘출석면접’이란 제한 대상, 예 해명하는 지원자에게는 원격(화상) 면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전형장소: 서울캠퍼스 (자세한 고사장 및 고사일은 추후 공지)

7. 기타사항

가. 장학금 (*장학금은 입학 후 장학위원회를 통해 결정 됨)
- 신입생 성적우수 장학금 - 성적우수 장학금
- 공로 장학금 - 학비지원 장학금 - 원우회 임원 장학금
※ 외교안보학과 국가안보전공: 입학생 전원 등록금의 50%를 장학금으로 지급
나. 주말수업(토요일) 개설 / 평일수업 19시 시작
- 본 대학원 내 학과간 교과수강 가능
다. 온라인 병행수업 진행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gsps.hufs.ac.kr> 및 모집요강 참조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교학처 사무2팀

(정치행정언론대학원)

TEL 02-2173-2428, 2429 FAX. 02-2173-3358
(우)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이문동 270)



한국외국어대학교 KFL대학원(야간) 2024학년도 전기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1. 2024학년도 전기 입시일정

구 분	특별전형	일반전형
원서접수	2023.09.25(월) ~ 10.11(수)	2023.11.06(월) ~ 11.22(수)
고사장 발표	10.18(수) 15:00	11.29(수) 15:00
면접전형	10.21(토) 10:00 예정	12.02(토) 10:00 예정
합격자 발표	11.02(목) 15:00	12.14(목) 15:00
등록예치금 납부	11.06(월) ~ 11.10(금)	12.18(월) ~ 12.22(금)

• 위 전형계획 및 시행 일정은 정원 총원 상향 및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특별전형은 학사과정 총 평점 평균이 3.0(4.5 만점 기준) 이상인 자
* 평균키폰 : 3.0(4.5 만점), 2.8(4.3 만점), 2.5(4.0 만점), 85(100 만점) 이상

2. 모집학과 및 전공

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과
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번역·커뮤니케이션학과
다. 외국어를 위한 한국 문화·문학 학과
라. KFL 문화 각 소등 전공(협동과정)

3.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금 학기 졸업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번역·커뮤니케이션학과 학과인 경우
지원자의 모국어가 외국어인 경우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중등교육 및 대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해외국민 및 외국인

4. 접수방법

가. STEP 1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
나. STEP 2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 및 기타 구비서류 교학처 제출
*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됩니다.

5. 제출서류

가. 공통제출 서류
1) 입학원서 1부(원서작성사이트에서 작성하여 출력)
2) 연구계획서 1부(원서사이트 또는 KFL 대학원 홈페이지 다문 가능)

3.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1부(원본)

4) 재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원본)
- 편입생은 전 대학교 성적증명서도 제출
5) 학력조회동의서 1부(원본)
6) 가족관계증명서 및 호구부(외국인 학생만 해당, 공증 필요)
7) TOPIK 3급 이상 성적표(외국인 학생만 해당)
8) 재직증명서(외국인 학생만 해당-2만달러 이상)

나. 외국대학 학위취득자

1)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증명서류 제출 시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또는 국내 해당국가대사관 공증서 제출 필요
다. 선택 제출서류
1) 자격증 : 초·중·고 교사 자격증, 한국어교원 자격증 가산점
2) TOPIK(한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6급 이상) 가산점

6.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 면접시험은 출석면접을 원칙으로 합니다. 면접시험에 불참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7. 전형장소 : 서울캠퍼스(자세한 고사장 및 고사일은 추후 공지)

8. 기타사항

가. 재학생 성적우수, 외국인, 동문 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 혜택
나. 최소 3학기(초기 졸업 가능(학업우수자))
다. 한국어 교육 및 번역 실무전문가 양성 과정
라. 졸업시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 취득(외환과, 한국어번역과정 이수중생서 수여(번역학과))

9.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gskfl.hufs.ac.kr> 및 모집요강 참조

10. 한국외국어대학교 KFL대학원 교학과

TEL. 02-2173-3982~3 FAX. 02-2173-3969

(우)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이문동 270)
한국외대 KFL대학원 교학처(대학원 106-1호)



한국외국어대학교 KFL대학원
Graduate School of KFL,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불명확한 유고결석기준, 모두가 만족하는 제도를 위해선

우리학교는 현재 △배우자 및 형제자매의 사망△본인의 결혼△예비군 훈련△직계존비속의 사망 등의 사유에 한해서만 유고결석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불의의 사고를 겪더라도 종합병원의 진단서가 없는 경우 유고결석으로 인정받

지 못한다. 또한 실질적으로 유고 결석의 인정 여부에 있어 교수의 재량이 크게 작용하기에 이에 따른 불만과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우리학교 유고결석 제도의 한계점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기사를 통해 알아보자.

◆유고결석 제도의 한계점

우리학교는 유고결석·결시 규정에 명시된 사유에 의한 결석에 대해 매 학기 최대 총 수업일수의 4분의 1까지 유고결석으로 인정하고 있다. ‘2023학년도 2학기 수강편람’에 따르면 △교직과정 이수자의 교육 실습△배우자 및 형제 자매의 사망△본 대학교 및 단과대학을 대표하는 행사 참가△본인의 결혼△불의의 사고△생리공결△예비군 훈련△졸업시험△직계존비속의 사망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유고결석으로 인정된다. 생리공결의 경우 한 학기당 2회에 한해 인정된다. 그러나 일반 병가나 종합병원의 진단서가 없는 경우엔 원칙적으로 유고결석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처럼 우리학교의 유고결석의 인정 범위는 비교적 협소한 상황이다. 우리학교 재학생 손호영(아시아·마인어 23) 씨는 “감기로 인한 증상이 심해 수업에 출석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가 없다는 이유로 유고결석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또한 유고결석 제도의 모호성도 문제로 지적된다. 현재 우리학교에서는 유고결석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만 예비군 사유를 제외하면 이를 수용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교수의 재량에 달려있다. 이처럼 유고결석 제도가 교수의 재량에 따라 운영되기에 수업마다 출석 인정 기준이 상이해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생리공결제에 대한 악용 가능성도 제기된다. 생리공결제 시행 이후 이를 남용하는 학생이 많아지며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학교 재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엔 실제로 생리공결 악용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글이 여럿 게시돼 있다. 우리학교 재학생 A 씨는 “연휴 기간이 되면 특히 생리공결 악용 사례가 느는 것 같다”며 “악용 사례를 줄이기 위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텅 빈 우리학교 강의실 모습

◆나아가야 할 방향

현재 우리학교는 입원이나 수술 등의 병가는 유고결석으로 인정되지만 내과 검진이나 단순 외래진료 등의 사유는 유고결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설کم 학생종합지원센터(이하 학종지) 측은 “개별적인 사정을 일일이 고려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대부분의 교수와 학생들이 요구할 경우 관련 규정을 개편할 수 있지만 유고결석에 관해 현재까지 다수의 의견이 수렴된 바는 없다”고 답했다. 또한 유고결석 인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관해선 교수의 재량 상황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같은 유고결석의 모호성을 해소하기 위해선 제도를 보다 명확하게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리공결의 경우엔 증빙서류 제출 시스템을 강화해 제도의 오남용을 막고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서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에선 지하철 연착을 유고결석 사유로 인정하는 등 상대적으로 유동적인 출석 인정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숙명여자대학교의 경우 등교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포함된 의사의 소견이 있거나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병고를 앓고 있는 경우 △의사 소견서△진단서△진료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유고결석으로 인정된다. 단국대학교 또한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치료의 경우 △약국 영수증△진료비 영수증△진료확인서△처방전 등을 제출하면 유고결석으로 인정된다. 이는 여러 상황에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다 폭넓게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학생의 입장을 반영한 유고결석 제도의 개편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지윤 기자 07jiyoon@hufs.ac.kr

후속보도

되풀이되는 시험문제, 족보 공유는 개선됐나

지난 1025호 심층기사에선 족보 공유 및 매매로 인한 문제를 다뤘다. 한편 이번 학기 개강 이후 우리학교 재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이하 에타)에선 40여 개가 넘는 족보 관련 글이 게시됐다. 족보로 인한 공정성과 저작권 문제

가 화두에 오른 가운데 족보의 문제점과 족보의 현 상황에 대해 기사를 통해 알아보자.

◆족보의 문제점

족보란 다년간 누적된 수업 자료나 시험 문제를 일컫는 은어다. 이번 학기 개강 이후 에타에 게재된 족보 관련 게시물은 40여 개가 넘는다. 족보의 문제점으론 크게 공정성과 저작권 문제가 존재한다. 우선 족보를 입수한 학생의 경우 시험 문제의 유형과 형식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기에 공정성이 훼손될 여지가 있다. 족보 유무에 따른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성적 평가의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저작권 문제도 심각한 사안이다. 현행 저작권법 제4조는 △강연△논문△소설△시 등의 어문저작물도 저작권 보호 대상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시점부터 발생하는 권리이기에 시험 문제에 대한 무단 복제 및 배포 역시 저작권법에 의해 규제된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은 저작물 공유 및 유포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출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기출문제 유포는 위법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더불어 저작권법 제30조에 의하면 타인의 저작물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유하거나 유료로 자료를 판매하는 행위를 위법행위로 규정한다. 또한 저작재산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와 2차적 저작물 제작의 방법으로 침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조세희 법무법인 율화 변호사는 “상습적으로 족보 거래를 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 행위로 볼 수 있다”며 “학생 사회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각성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족보의 공급책은 대부분 학생이다. 실제로 우리학교 에타엔 시험 유형과 문제를 공개하면 이를 커뮤니티 상의 포인트로 전환해 주는 게시판도 존재한다. 자신이 응시한 시험 문제 자료를 활용해서 금전과 같은 수단으로 전용할 수 있는 것이다. 더불어 게시판에 ‘족보 판

매 합니다’란 제목으로 게시물을 게재해 직접 족보를 판매하는 경우도 다수 존재한다. 이러한 족보 매매 상황으로 인해 사기 피해를 경험하는 학생도 증가하는 추세다. 조선비즈 기사에 따르면 대학생 A씨는 학교 커뮤니티에서 족보를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보고 거래에 응했으나 다른 과목의 족보를 받는 등 사기를 당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시험기간이 되면 이와 같은 족보 사기 사례는 더욱 빈번하게 발생한다. 또한 사기를 당하더라도 족보 거래 자체가 불법이기에 신고하기 어려워 피해가 가중되는 실정이다.

◆우리학교의 족보 실태

지난 기사에선 △경제학과 족보 사건△교수 인터뷰△족보 논란의 다른 사례△족보의 문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당시 경제학과 족보 사건을 시작으로 족보로 인한 문제가 번졌고 이는 에타에서도 크게 화제가 됐다. 이후에도 변함없이 족보에 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족보 거래가 성행하는 원인 중 하나는 교수가 동일한 과목을 담당하게 될 경우 기존의 기출문제와 유사한 유형으로 문제를 출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경향이나 기조는 교수의 재량 범위에 속하기에 유사한 유형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출제될 수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족보 양산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족보를 매매한 학생들에 대한 처벌 역시 현실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 학사종합지원센터(이하 학종지)에 따르면 우리학교는 아직까지 족보 거래 및 이용 학생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타 대학과 해외 대학의 사례가 주목 받는다. 박덕영 연세대학교 교수는 “족보 문제의 심각성이 증가함에 따라 시험 직전 학기의 기출 문제를 공개하고 있다”며 “이는 족보로 인한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고 답했다. 해외 대학의 경우 △도쿄대학교△런던정치경제대학교△호주뉴사우스웨일스대학교(The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등은 학교 측에서 기출 문제를 직접 공유하고 있다. 기출문제를 공유할 경우 학생들이 족보를 구입할 원인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즉 불법적인 족보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학교가 직접 대책을 수립해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학교 재학생 B 씨는 “교수들 또한 매년 문제 유형을 다양화해서 비슷한 문제가 겹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똑같은 유형의 시험 방식이 사라진다면 학생들 또한 족보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사용이 줄어들 것이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시험지상에 저작권 염수를 강조하는 문구를 넣는 등 법적 처벌의 위협성을 강조할 필요도 있다.

추석연휴 이후 다가올 중간고사 시험기간엔 족보 매매가 더욱 성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족보 매매 문제에 대한 학내 구성원 간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지윤 기자 07jiyoon@hufs.ac.kr

우리학교 이중·부전공 제도의 허점, 개선안을 검토해야 할 때

우리학교는 07학번 이후 학생 혹은 후기 편입생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부전공 △이중전공△전공심화 중 1개의 과정을 선택해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이중·부전공 제도는 졸업을 위해 사실상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제도임에도 미흡한 부분이 존재해 학생들의 불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 우리학교

이중 및 부전공 제도의 본래 취지를 올바르게 실현하기 위한 논의가 시급한 상황에서 △우리학교 이중·부전공 제도 현황△이중·부전공 제도에 나타난 허점△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학교 이중·부전공 제도 현황

우리학교는 △국제학△어문학△지역학에 더해 △경영△경제△정치외교△AI△SW 분야 등의 여러 학문을 융합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학문을 복수로 전공할 수 있도록 하는 이중전공 제도가 구축돼 있다. 15학번 이후의 이중 및 부전공 과정을 선택한 우리학교 재학생이 졸업하기 위해선 자신의 전공학점에 더해 이중전공 42학점 혹은 부전공 21학점을 추가로 수강해야 한다. 이중전공은 당해 학기 편입생 중 희망자와 1학년 과정 수료 전의 재학생이 일정한 요건을 갖춰 신청기간에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선발 여부가 공개되며 부전공 이수자가 추후에 후기 이중전공으로 진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부전공은 2개 학기 이상 등록한 재학생 및 휴학생이 신청하면 배정받을 수 있다. 양 캠퍼스(이하 양캠퍼) 수강편람에 따르면 이중 및 부전공 수강신청은 자신의 본전공 수강학년 수강일과 동일하다고 기재돼 있지만 일부 학과의 경우 수강신청에 있어 본전공생과 이중·부전공생 사이에 차등적인 대우가 존재하기도 한다. 한편 이중전공 변경은 재학 중 1회만 가능하며 자신의 학번대에 여석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이중전공 변경기간에 신청해 이미 한 번 이중전공을 변경한 경우엔 추후 다시 이중전공 변경신청이 불가하다.

이중 및 부전공으로 선택할 수 있는 학과는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학과에 따라 특정 자격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일부 학과들은 △면접△어학성적△자체시험 등을 요하기도 하며 캠퍼스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으나 특정 캠퍼스에 국한된 학과도 존재한다. 또한 양캠퍼에 동일하게 개설되는 융합전공과 부전공의 경우 자신의 소속 캠퍼스에서 이수해야 한다는 규정도 명시돼 있다. 특히 융합전공은 2개 이상의 전공을 융·복합한 제도로 일반융합전공과 학습자설계융합전공으로 구분되며 모두 이중전공으로만 이수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일반 융합전공은 △문화콘텐츠학전공△브릭스(BRICs)전공△EU전공 등 2개 이상의 전공 또는 연구소가 연계해 개설한 전공이다. 학습자설계융합전공은 모든 학과·부 및 국내외 학점인정 대학을 통해 취득할 수 있는 교과과정을 학생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전공이다. 학습자설계융합전공의 경우엔 타 대학 및 학과와의 교류가 중요해 졸업에 필요한 학점 취득이 비교적 까다롭다는 측면이 있다.

◆이중·부전공 제도에 나타난 허점

현재 우리학교 이중·부전공 제도에서 드러나는 문제는 복합적이다. 우선 이중·부전공생의 수강신청에 관련된 문제가 거론된다. 지난해 공개된 이중전공 학과·부 경쟁률에 따르면 서울캠퍼스(이하 설캠퍼)는 △광고PR브랜딩△경제학△언론정보 전공 순으로 경쟁률이 높았다. 글로벌캠퍼스는 △국제금융학△글로벌스포트산업학△컴퓨터공학 전공 순이었다. 특히 타 학과·부에 비해 인기가 많은 상경계열을 이중·부전공으로 하는 학생들은 수강신청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8월 우리학교 재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엔 경제학부 이중·부전공생의 수가 설캠퍼에 존재하는 학부 중에서 많은 편에 속함에도 경제학부 강의 좌석이 수강인원 수에 비해 현저히 낮다며 불만을 제기하는 글이 올라왔다. 한편 본전공생은 이중 및 부전공생의 유입으로 인해 필수로 들어야 하는 수업을 신청하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에 손종철 우리학교 경제학부장은 “학교에서 허용하고 있는 강좌 수를 초과해 강의를 개설할 수 없고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설캠퍼의 대형 강의실 수에 제약이 있어 수요 초과로 인한 불편이 지속되는 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경영학부의 경우

수강신청 관련 공지사항에 모든 과목에 대해 증원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경영학부를 이중·부전공으로 하는 학생이 수강신청에 실패했을 때 별도의 구제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이다. 이순희 우리학교 경영대학 학부장은 “현재 우리학교는 국제경영교육인증(AACSB)을 받은 상태인데 60명이 넘는 강의가 존재할 경우 국제 인증에 있어 불리해지기에 증원 신청을 받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중·부전공생의 수강신청을 수강정정기간에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일부 학과의 방침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도 존재한다. 경영학부의 경우 부전공생은 수강정정기간에만 수강신청이 가능해 잔여 여석이 있는 강의만 수강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된다. 브릭스 전공은 전공선택 과목 이수학점에 따라 상경학점을 최소 18학점에서 최대 28학점 이수해야 한다. 전공 내 개설되는 강의만으로는 최대 24학점까지 채울 수 있어 남은 학점은 우리학교의 타 상경계열 강좌를 통해 이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브릭스 이중전공생이 상경계열 중 경영학부 강좌를 듣기 위해선 수강정정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어 여석이 부족한 경우가 발생한다. 신은경(통번역·태국어 21) 씨는 “브릭스 전공 수업의 수강신청도 어려운 편인데 상경트랙을 채우기 위해 경영학부 수업에 대한 수강신청을 하려면 수강신청

이중전공 및 부전공(전공심화)

대상	2007학번 이후 학생
내용	이중전공, 부전공 또는 전공심화과정 중 1개의 과정을 선택하여 필수 이수 ※ 전공심화과정의 경우 부전공은 선택사항임
시작시기	2학년 (※ 편입생은 편입 두 번째 학기부터)
배정시기	2학년 진급시
제외자	① 편입생 ② 군위탁생 ③ 2015학번부터는 사범대학을 제외한 순수외국인 특별전형 입학생 단, 재학연한 내에서 이중전공, 부전공 또는 전공심화과정 가능

▲우리학교 이중·부전공(전공심화) 관련 지침 (출처: 우리학교 수강편람)

기간 이후의 잔여 여석 내에서만 선점해야 하기에 이중전공 학점 이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브릭스 전공은 “타 상경계열에서 개설된 수업을 듣는 것은 자율 선택의 형태로 수강하는 것이기에 해당 학부의 수강신청 관련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이중전공△본전공△부전공생이 혼재된 강의가 있는 반면 이중·부전공생 전용 강의가 개설된 학과도 존재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학과별로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학생의 기준이 각기 상이해 공평하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학교 어문계열 중 △독일어과△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태국어통번역학과△폴란드어과 등은 이중전공 강의가 부재해 본전공생과 이중·부전공생의 성적이 함께 산출된다. 특히 어문계열 이중전공생의 경우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본전공생과 누적된 수업량의 격차가 커져 언어 수준 차이에 대한 부담감이 심화된다는 입장이 대두된다. 태국어통번역학과(이하 태통)를 이중전공으로 이수 중인 김채연(통번역·중국어 20) 씨는 “다른 학과는 이중 전용 강의가 개설돼 있지만 태통의 경우 본전공생과 함께 경쟁해야 해 성적 및 학습에 관한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다”고 전했다. 이병도 우리학교 태통 학과장은 “관련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으나 별도의 강의를 개설할 만큼 이중전공생의 인원수가 많은 것도 아니기에 이중전공생 전용 강의 개설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중전공 변경횟수가 1회로 제한돼 있어 학생들이 불편함을 겪기도 한다. 또한 이마저도 중도 포기 또는 미달 여석의 범위 내에서 변경 가능하기에 최초 신청에 비해선 다소 제약이 많다. 마재운(아시아·이란어 22) 씨는 “다양한 진로를 고려하고 있지만 이중전공 변경가능 횟수가 턱없이 적어 더이상 관심사가 아닌 이중전공 수업을 졸업할 때까지 들어야 하는 게 고역이다”고 전했다. 특히 학습자설계융합전

공은 타 대학 및 학과와의 교류를 통해 학점을 취득하는 방식이기에 더욱 정밀한 계획이 요구된다. 따라서 학생이 설계한 계획과 방향이 어긋나 더이상 타 대학 및 학과에서의 수강이 불가하고 학점을 이수할 수 없게 될 경우 이중전공 변경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미 이중전공 변경 전적이 있다면 이중전공 이수를 아예 포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학교 학사종합지원센터(이하 학종지)는 “이중전공 변경횟수의 제한은 이중전공 설계 당시 교수와 학생의 의견에 따른 것이지만 해당 문제는 학사제도 개편안이 본격화되면 재고해 볼 만한 사항이다”고 답했다.

◆나아가야 할 방향

이러한 상황에서 이중·부전공 제도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다른 대학교의 사례가 주목받는다. 서강대학교(이하 서강대)는 다양한 학문을 접하고 적성에 부합하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다전공 제도가 마련돼 있어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다. 여기엔 △면접△변경횟수△어학성적△인원△정원△학점 등의 제약이 존재하지 않아 자유롭게 이수할 수 있는 점이 한몫한다. 또한 서강대에선 자신의 모집 단위에 속한 전공을 포함해 최대 3개의 전공까지 선택할 수 있다.

이중·부전공생의 불만이 심화하면서 우리학교 일부 학과는 학생들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상경대학 및 사회과학대학의 한 강의당 기본 정원은 60명이지만 경제학부의 경우 이중·부전공 학생의 강의 수요를 고려해 강의당 수강인원을 70~120명까지 늘려서 운영하는 것이 그 예다. 또한 경제학부는 이중·부전공 학생을 위해 전공필수 과목 분반을 추가 개설할 여지가 있다며 수강생의 사정을 최대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브릭스 전공은 최근 증가한 브릭스 이중전공생을 고려해 강좌수를 증설하고 각 강의별 정원도 이전에 비해 증원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브릭스 전공 측은 배정되는 강의실 최대 수용 인원엔 거의 근접하게 증원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태통과 폴란드어과는 이중전공생도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 주관 비교과 프로그램△학과 행사△해외 연수 등에 본전공생과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본전공생과 이중전공생 간의 언어 수준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학생들이 이중·부전공 제도를 필수로 이수하도록 요구하는 학교가 그에 합당한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잇따른다. 우리학교는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융복합 인재 양성을 위해 이중·부전공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학생의 선택권 확대라는 당위에도 부합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학종지 측은 “최근 교육부가 학생의 선택권 강화를 위한 각종 제도 및 규제 완화 등의 방향으로 고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을 개정 중이다”며 “우리학교 또한 전반적인 이수학점 체계 및 교과과정 운영 등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는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학생의 학습권 확대를 위한 각종 제도를 선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에 유다인(중국·중외통 22) 씨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이중·부전공 제도가 마련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우리학교가 이중·부전공 제도의 허점을 개선해 학생의 선택권 및 학습권 강화라는 본래 취지를 되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치열한 취업 준비, 아쉬운 학생 지원

우리학교 공공인재개발원(이하 공개원)은 우리학교 학생들이 대학생활을 병행하며 공무원 또는 전문직 직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운영된다. 취업의 문턱이 높아지면서 전문직 직업에 대해 많은 학생들의 관심이 증

가하고 있지만 공개원의 운영이 아쉽다는 여론 역시 존재하는 실정이다. △우리학교 공개원 운영 현황△문제와 그 원인△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

◆우리학교 공개원 운영 현황

우리학교에선 서울캠퍼스(이하 설캠)와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 모두 각각 공개원을 통해 △공무원△언론인△전문직과 같은 직업을 목표로 하는 연구실원을 선발해 운영하고 있다. 설캠 공개원에선 △공인회계사(CPA)시험 연구실△국립외교원시험 연구실△법학전문대학원 준비반(Pre-Law School)△언론고시 연구실△임용고시△행정·입법고시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다. 글캠 공개원에선 △관세사△공인회계·세무사△노무사△로스쿨(Law School)△변리사△법무사△외교아카데미(Academy)△행정·입법고시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다. 설캠 공공원에선 매년 12월 ‘공공인재 WEEK’를 통해 최근 합격자 선배를 초청하여 우리학교 학생들의 지원을 장려하고 있다. 고시반에 합격한 연구실원에게 △관련 시험 과목 특강·모의고사 제공△연구실원 전용 열람실 좌석△해당 시험 관련 교재구입비 및 강의비 등이 지원된다. 또한 공무원 합격자 및 일부 자격증 1차 합격자에게 고시장학금을 지원한다. △국가공무원 5급(행정·기술)△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외교관 후보자△입법부 일반직 5급△변리사 시험 1차 및 최종합격자는 장학금 수혜 대상에 해당한다.

외대학보가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우리학교 공개원에 관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우리학교 학생 중 공개원에서 모집 중인 직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66.7%의 학생이 ‘관심이 있다’고 대답했다. 이처럼 많은 학생들이 해당 직군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공개원 운영제도에 대해 학생들의 시선이 자연스레 모이고 있다. 하지만 우리학교 재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이하 에타)에선 공개원의 운영방식에 대한 아쉬움과 불편함을 호소하는 게시글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학생들이 불편함과 문제의식을 느끼는 주된 요인으로 △적은 모집 인원△과도한 업무 부담△캠퍼스 간 운영 방식 차이가 있다.

◆문제와 그 원인

먼저 일부 학생들은 공개원의 적은 모집 인원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설캠 공개원은 총 6개의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인원은 150명이다. 글캠 공개원의 경우엔 총 8개의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인원은 24명이다. 우리학교 재학생 대비 공개원에 소속된 학생 수의 비율은 타 대학과 비교했을 때 낮은 편이다. 실제로 △서울시립대학교△숭실대학교△우리학교는 각각 △3.4%△1.7%△1%로 우리학교가 다른 학교에 비해 낮은 수치를 띠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우리학교 공개원에선 재학생 16,593명 중 174명을 선발하고 있다. 고려대학교의 경우 재적 학생 수 19,597명 중 행정·외교관 시험 고시반에서만 140명을 선발한다. 서강대학교(이하 서강대)의 재적 학생 수는 11,533명으로 우리학교보다 적지만 공인회계사 고시반 모집인원은 약 77명으로 확인됐다. 모집 인원이 적은 형국에 대해 설캠 공개원은 “공개원 정원 확대 시 공간 사용에 제약이 있다”며 공간 확충에 대해 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글캠 공개원은 “연구실 자격사항을 갖추어 지원하는 학생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다음 문제 요인으로 실원의 과도한 업무부담이 꼽힌다. 현재 신입 연구실원 모집의 경우 실원이 연구실장을 맡아 연구실원 선발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연구실원 선발을 학교측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고시 시험 준비만으로도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한 학생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는 의견이 제기된다. 실제로 행정고시 연구실인 사민재 연구실장은 “집행부의 업무 중엔 실원 모집 뿐만 아니라 예산관리 등도 있어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고 밝히며 “수험 관련 지식을 갖춘 실원 선발 전담 직원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보였다. 한편 지난 6월 에타에선 연구실원 선발과정에서 지인을 연구실에 합격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글이 게재돼 화제가 됐다. 학생들이 신입 연구실원들을 선발하는 방식이기에 주관적인 기준이 개입됐다는 것이다. 해당 사안이 언론고시반에서 발생한 것은 아니나 김린아 언론고시반 실장은 “같은 학우인 실장이 문제를 출제하는 만큼 문제 유출 등의 비도덕적 행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음을 이해하지만 그런 일은 결코 발생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캠퍼스 간 공개원 규모의 격차도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먼저 글캠 연구실의 운영인원은 24명으로 이는 설캠 연구실 운영인원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숫자다. 글캠 공개원측은 한 연구실당 3-4명의 인원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한 학기마다 공개원 인원이 전부 교체되는 것이 아니기에 한 번 인원이 선발되고 난 후엔 결원이 발생할 때에 한해 소수의 인원이 충원되는 방식인 것이다. 우리학교 재학생 A씨는 “나를 비롯해 전문직과 공무원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글캠 학생이 많다”며 “현재 글캠 모집인원인 24명은 너무나도 적은 인원이라 생각한다”고 글캠의 적은 공개원 모집 인원에만 한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글캠엔 언론고시반이 존재하지 않아 언론인을 지망하는 학생들의 불만이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현재 언론인을 희망하는 글캠 학생은 설캠에 있는 언론고시반에 지원해야 하는 실정이다. 글캠에서 설캠 언론고시반으로 통학하는 학생들의 경우 물리적인 거리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나아가야 할 방향

먼저 고시반 모집 인원에 대한 개편이 필요할 것으로 파악된다. 김하형(아시아·마인어 21) 씨는 “연구실 인원이 많다고 무조건 긍정적인 기능만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으나 “타 학교의 사례를 관망하면 학교의 지원정도가 전문직 졸업생 배출규모와 큰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에 설캠 공개원에선 인원 확충에 대해 “공개원 운영위원회를 통해 정원확대와 필요한 공간 확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예산 증액과 확대 요구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해 데이터를 축적하는 중이다”는 의견을 보였다. 행정고시반인 사민재 실장은 “정원 제한으로 인해 매 학기 모집하는 실원이 적어 경쟁

률이 높다”며 “고시반의 규모가 워낙 작기에 다양한 학생들이 모이기 어려운 것이 아쉽다”고 전했다.

연구실 내 학생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 역시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운영위원회 회의에선 연구실장의 단순 행정업무로 인해 학업에 전념하기 어려워지는 것으로 보인다는 지도교수의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공개원 측은 “연구실별 조교제도를 도입할 경우 실장과 조교의 복수 존재로 인해 장학금 중복 수혜 문제가 발생하기에 각 연구실별 사정으로 인한 우려가 있다”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개원 공통 조교가 고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글캠 공개원의 적은 인원 운영에 대해 글캠 공개원 측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종료된 이후 ‘고시 재질을 찾습니다(공직적격성평가시험(PSAT)/법학적성시험(LEET)공개시험 이벤트)’를 시행하며 학생들의 공공인재개발원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며 “공개원은 주어진 예산 안에서 최대한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언론고시반 부재의 문제에 대해선 “글캠엔 언론관련 학과가 없기에 신규개설 계획은 따로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우리학교 설캠 제 57대 총학생회장 배귀주(국통·20)씨는 “학생인재개발처장과 면담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고시반 확장 및 지원 확충을 요구하고 있다”며 “시대의 흐름에 맞춰 학교의 경쟁력을 올리기 위해 고시반은 점진적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답변을 통해 우리학교 고시반 확장 필요성을 나타냈다. 현 상황에선 공개원 운영인원과 학습 환경에 대해 다소 아쉬운 점들이 존재하지만 학교에서도 이에 대해 개편하려는 노력들을 보인다. 타 대학교의 사례처럼 우리학교 공개원에 대한 개선이 이뤄져 학생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더 나은 학습 환경이 조성될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권오건 기자 07ogun@hufs.ac.kr



www.shinwoocs.com

고객신뢰를 바탕으로 한 상생의 경영
(주)신우냉장

동결,보관저장,농수축산물 전문 물류,저온 물류등의 다양한 물류와 비즈니스로 고객만족의 실현을 목표로 수도권 최적의 신선물류 선도기업입니다.

(주)신우냉장 경기 광주시 도척면 국사봉로 75 T. 031-764-8107~9 F. 031-762-3885
(주)S W C 경기 광주시 도척면 국사봉로 97-27 T. 031-766-8322~5 F. 031-766-8326~8



예기치 않은 폴란드 유학과 예기치 않은 행복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우리학교 7+1 파견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폴란드 크라쿠프(Krakow)에 위치한 야기엘로니아 대학교(Uniwersytet Jagielloński)로 유학을 다녀왔다. 난 우크라이나어과에 재학 중이기에 원래 우크라이나 대학으로 갈 예정이었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 결국 폴란드로 유학을 가게 됐다. 내 전공에 해당하는 국가를 갈 수 없는 상황에 대해 고민했지만 입시를 준비하던 시기부터 교환학생을 꿈꿨고 유럽 문화권에서 직접 공부하고 생활하고 싶었던 욕망이 찾기에 유학을 결심했다.

유학기간 동안 현지 숙소에서 거주했고 우리나라에서의 학교생활보다는 많은 여유 시간을 즐길 수 있었다. 수업 전후에 △기숙사 앞 공원 산책하기 △르네상스 시장(Rynek Główny) 구경하기 △직접 장보고 요리하기 등 다양한 경험과 활동을 해나기면서 간절히 바라던 유럽에서의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었다.

한 학기 동안엔 내가 머문 도시인 크라쿠프(Kraków) 곳곳을 여행할 수 있었고 연후엔 폴란드의 다른 도시를 다녀왔다. △발트(Bał)해를 볼 수 있는 그단스크(Gdańsk) △아름다운 모스크비에 오코 호수가 인상깊은 자코파네(Zakopane) △아우슈비츠(Koncentrationslager Auschwitz)-비르케나우(Birkenau) 수용소가 있는 오시비엥짐(Oświęcim) △크리스마스



마켓이 유명한 브로츠와프(Wrocław) △폴란드의 수도인 바르샤바(Warszawa) 등 폴란드에 존재하는 도시의 다양한 면을 경험할 수 있었다. 특히 오시비엥짐이 내겐 가장 인상적인 지역으로 남는다. 다큐멘터리와 영화에서만 보던 수용소의 광경을 실제로 목도하며 나치의 잔혹성과 유대인의 희생에 다시금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유학을 다녀온 후 지인들이 폴란드에서의 생활이 어땠는지 물어볼 때마다 폴란드에 꼭 가보기를 권유한다. 우리가 머물렀던 크라쿠프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만큼 너무나도 아름다운 도시이기에 귀국한 지 반년이 넘는 지금도 눈을 감으면 크라쿠프 구시가지가 눈에 어른거리는 듯한 경험을 하곤 한다.

우크라이나어과에 재학중임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문화를 몸소 느끼지 못했고 해당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다소 부족했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하지만 폴란드에서 많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만

날 수 있었고 그들에게 전쟁에 대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견해와 같은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기에 이는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값진 시간으로 회고된다.

또한 유학은 사람들에게 받은 친절과 사랑이 헛되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친절해야겠다고 다짐하는 계기가 된 귀중한 경험이기도 했다.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그때를 추억할 때마다 당시 유학 중이던 내가 너무 행복했고 유학 가기 전보다 현재의 내가 더욱 성장했다는 것을 느낀다. 우리학교 7+1 파견학생 프로그램 덕에 유럽권에서 생활하고 여행하며 잊지 못할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누군가 교환학생을 고민하고 있다면 망설이거나 겁먹기보단 적극적으로 도전하라는 말을 전하고 싶다.

김유림(동유럽 · 우크라이나어 20)



일본

<키친>

- 삶과 죽음에 대한 고찰 -



삶을 살아가다 보면 갖가지 상처를 받아 자연스레 내면에 생채기가 나기 마련이다. 이때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내면의 아픔을 극복하려 시도하거나 방치한 채 슬픔을 심화시키기도 한다.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에선 인간의 반사회적 혹은 예술적인 면모가 부각되는 등 다양한 모습이 관찰된다.

요시모토 바나나(吉本ばなな)의 '키친'은 세 개의 단편으로 이뤄져 있지만 다양한 사

연을 지닌 주인공들의 상처가 기워진다는 하나의 관통된 주제가 드러난다. 세 단편 중 '키친'과 '만월'에선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그동안 자신을 돌봐주신 조부모마저 세상을 떠나며 핏줄 하나 없이 홀로 남겨진 '미카게'가 등장한다. 미카게는 끝없는 암울 속에 사로잡혀 무기력하게 부엌에 누워 하루하루를 연명한다. 그러다 미카게는 운명적으로 그녀의 할머니가 생전에 자주 들르던 꽃집에서 일하는 청년인 '유이치'의 권유로 함께 살게 된다. 미카게는 유이치 그리고 실질적으로 유이치의 아버지지만 그의 어머니가 죽은 후 어머니의 역할을 도맡아 하기 위해 성전환 수술을 감행한 '에리코'와 함께 살아가면서 내면의 상처를 보듬어 간다. 하지만 에리코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유이치는 미카게와 비슷한 처지에 처하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남겨진 서로의 아픔과 상실감을 공유하며 치유해 나간다. 이 과정에서 유이치와 미카게는 파스한 관계 속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굶아있던 마음의 상처를 회복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 단편인 '달빛 그림자'에 등장하는 '사츠키'와 '히토시'는 4년에 걸쳐 연애했던 연인 사이다. 그러나 히토시가 교통사고로 인해 돌연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사츠키는 내면의 고통을 외면한 채 살아가려 하지만 히토시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늘 괴로워한다. 우연히 '우라라'라는 인물의 도움을 통해 죽은 히토시와 적극적으로 대면할 수 있게 된 사츠키는 히토시에게 영원한 작별을 고하고 내면의 상처를 극복할 수 있게 된다.

내면의 상처에 대한 치유와 구원에 도달하기 위해선 각자의 방식이 존재하겠지만 작가는 극복 의지를 기질 수 있는 용기에 주목한다. 작품 속 주인공들은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도 이를 감내하려 하며 오히려 초연한 면모를 보여준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러한 답답함 속에서 아련하게 드러나는 슬픔은 그 비극성을 더욱 증폭시킨다. 그들의 깊은 내면의 아픔을 깨내 마음껏 슬퍼하며 극복하려는 의지가 나타날 때 그들은 비로소 성장할 수 있게 된다. 작가는 극복과 성장이 희망과 가능성의 전부라고 언급하기도 한다.

또한 이 작품엔 죽음이라는 요소가 가미돼 익숙해서 잊고 있던 소중함의 가치를 일깨워준다. 일상생활 속 익숙한 대상의 상실은 감당하기 힘든 상처로 돌아올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삶에서 간과하고 있거나 잊고 있던 가치를 되새겨보는 것도 필요하다. '키친'을 읽고 상실과 이별로 공허해진 마음을 치유하고 삶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

정연아 기자 06znchung@hufs.ac.kr

2023년 정기시험 안내

국내 최초,
최대 7개 언어 국가공인 인증(듣기·읽기)

FLEX^{TO}
플렉스
할래?

FLEX(Foreign Language EXamination)는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수년간의 개발을 거쳐 1999년 개발을 완료하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문적인 외국어능력시험으로 외국어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능력을 공정하고 균형있게 평가할 수 있는 표준화된 도구입니다. ※자격정보 안내 <http://flex.hufs.ac.kr>

1. 2023년 FLEX 정기시험 일정

구분	접수기간	시험일	성적 발표일	
			듣기·읽기	쓰기/말하기
4회	10.05~10.11	11.05	11.24(금)	12.08(금)

※ 원서접수 마지막날의 마감시간은 18:00입니다.
※ 고사장, 응시 과목에 따라 조기 마감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FLEX 듣기·읽기는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민간자격이며, 말하기, 쓰기는 등록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2. 응시자격 : 제한없음

3. 평가언어 :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 1개 언어 선택 응시 (동시에 2개 언어 응시 불가)

4. 원서접수 :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접수 가능
<http://license.korcham.net>

5. 응시료 : 듣기·읽기 45,000원, 말하기 75,000원, 쓰기 75,000원
▶ 접수 수수료 : 1,200원
▶ 수수료 환불규정 : 접수 기간 내 100% 환불 접수마감 이후~시험일 5일전 50%환불, 접수 수수료 환불 불가 시험일 4일전 이후 환불 불가

6. 결과발표

▶ 확인처 :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http://license.korcham.net> (문의) 02-2102-3600
▶ 성적유효기간 : 시험일로부터 2년

7. 참고사항

재학생 iBT FLEX(영어, 중국어) 응시 자격
: iBT 시험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 FLEX 정기시험(해당 언어)에 응시한 자



한국외국어대학교 FLEX센터

다량의 손실 도서관 자료들, 이용자의 불편을 막기 위해선

우리학교 도서관엔 방대한 종류의 자료가 존재한다. 하지만 도서관 자료 훼손·연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외대학보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많은 학생들이 도서관 자료의 훼손·연체로 인해 불편을 경험

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서관 자료 훼손·연체의 현황△도서관 자료 훼손·연체의 원인△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도서관 자료 훼손·연체의 현황

우리학교 도서관은 학교 구성원들에게 필요한 △학습자료△수업자료△수업에 활용되지 않는 일반자료△전자자료 등 방대한 종류와 분량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학생들은 도서관에서 학습에 필요한 자료를 대출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듯 도서관 자료는 우리학교 학생 모두가 사용하기에 이에 대한 훼손·연체 문제는 많은 학생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우리학교 도서관은 자료 훼손 관련 규정을 자체적으로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자료를 고의로 훼손한 경우 동일한 자료 혹은 일정 금액의 현금으로 변상해야 한다. 또한 도서관 이용 수칙 및 제재에 관한 지침 제3조에 따라 도서관 이용 금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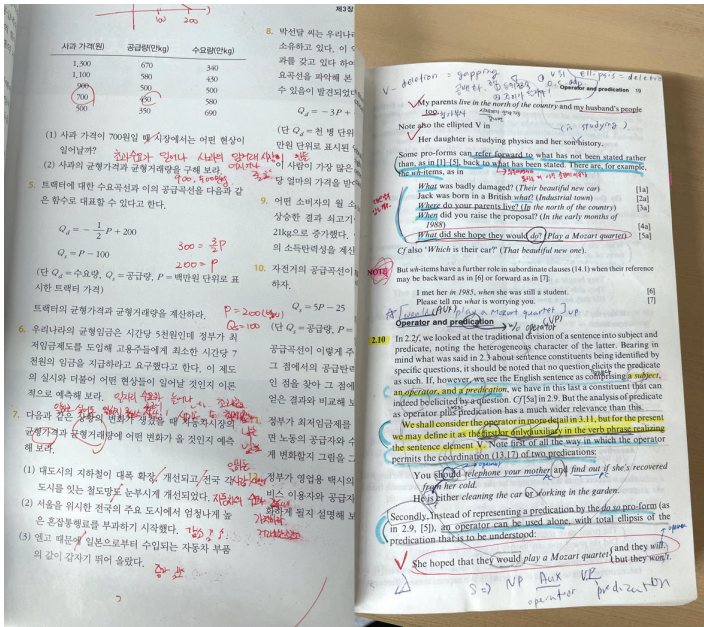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대학보가 지난 19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66%의 학생들이 도서관 자료가 훼손돼 불편을 겪은 경험 이 있다고 답했다. 이러한 훼손은 전공 서적을 비롯한 학습·수업자료와 일반 도서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먼저 학습·수업자료의 경우 자료에 실려있는 연습 문제를 풀 필적이 다수 존재했다. 이러한 낙서는 경제학부 등 연습 문제 풀이가 중시되는 일부 학과의 교과목에서 사용되는 수업자료에 주로 이뤄졌다. 실제로 경제학부 교과목의 수업자료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경제학원론 제5판’의 경우 풀이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취재 과정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강형우(아시아·이란어 22) 씨는 “경제학 전공 서적에 실려있는 연습문제를 풀어보고 싶어도 남아있는 풀이 흔적으로 인해 불편을 겪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수업에 활용되지 않는 일반 자료 또한 훼손 문제에서 자유로울 순 없었다. 이러한 자료의 경우 낙서뿐 아니라 찢어짐 등의 물리적인 손상으로 인한 훼손 사례가 많았다. 실제로 지난 4월 서울캠퍼스(이하 설캠) 도서관 인기대출 도서 1위를 차지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무엇이 가치를 정하는가>’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결과 책의 제본 부분이 손상돼 일부가 통째로 손실 될 위험에 처한 상태였다. 이에 대해 명형택 설캠 도서관 학술정보팀장(이하 명 팀장)은 “이용자가 자신이 필요한 부분만을 절취해 자료 일부분이 누락 되는 경우가 많다”며 “일부분이 누락되는 손상은 복구가 까다롭다”고 전했다.

양 캠퍼스(이하 양캠) 도서관은 이러한 훼손된 자료에 대한 점검·수리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먼저 양캠 도서관은 모두 자료를 전수조사 하는 ‘장서 점검’을 연 2회, 방학 중 2주간 진행하고 있다. 이 주기를 더 단축 할 경우 지금보다 조기에 훼손된 자료를 인지해 조치할 수 있겠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명 팀장은 “학생들의 불편과 도서관 근로 장학생들의 사정상 방학기간을 이용해 장서 점검을 진행하는 만큼 지금보다 더 짧은 주기로 진행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또한 양캠 도서관은 일부 서가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수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명 팀장은 “서가 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장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훼손된 자료에 대한 수리도 진행하고 있다. 심하게 훼손된 자료의 경우 현재 설캠 도서관은 연간 2회, 글캠 도서관은 연간 1회에 걸쳐 수리 작업을 외부업체에 위탁하고 있다. 이에 명 팀장은 “수리 작업의 주기를 단축하고 싶지만 학교 규정에 따른 최저가 입찰제의 특성상 수리 작업의 주기가 더 짧아질 경우 제본 업체의 입장에서 적자가 발생하게 돼 이를 실현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자료 연체도 문제 중 하나로 거론된다. 현재 우리학교 양캠 도서관은 학부 재학생 기준 1인당 최대 10권을 28일 동안 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해진 반납기일까지 반납하지 않은 경우 책 1권 당 1일 100원에 상당한 연체료를 납부해야 한다. 한편 이 연체료의 최대 금액은 3만 원으로 제한돼 있다.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다른 자료에 대한 대출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졸업자의 경우 졸업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이러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연체율은 유의미한 수준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우리학교 설캠 도서관에 문의한 결과 지난 2021년 9월 22일부터 지난 21일까지 전체 대출된 자료 대비 연체된 자료의 비율은 양캠을 통틀어 15.8%로 확인됐다. 동일한 기간 동안 6개월 이상 연체돼 자료의 사유화가 발생한 자료 또한 243권이었다.



▲낙서 및 손상으로 인해 훼손된 자료들

◆도서관 자료 훼손·연체의 원인

자료 훼손의 경우 훼손한 이용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주요한 원인으로 꼽힌다. 대부분의 책은 장기간에 걸쳐 훼손이 누적된 경우가 많아 훼손자를 특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훼손한 이용자의 자진신고에 기밀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명 팀장은 “이용자들이 훼손에 대해 자진신고하는 경우도 많은 것은 사실이다”며 “그러나 자진신고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해당 이용자를 도서관에서 특정하기 어렵기에 이용자의 선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특히 고의적 훼손에 따른 제재조치는 이뤄진 사례가 거의 없었다. 명 팀장은 “고의성을 증명하기 힘들 뿐더러 고의적인 훼손의 경우 몰래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적발하기 어렵다”며 “재직하면서 이를 이유로 제재 처분이 부과된 이용자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연체의 경우 연체료 제도와 관련이 깊다. 연체료 제도가 존재하지만, 학생들은 오히려 많은 학생들은 오히려 연체료 부담을 감수하면서 연체를 감행한다. 일례로 고가의 전공 도서를 학기 초에 대출한 뒤 장기 연체를 하는 사례가 있다. 이러한 경험이 있는 우리학교 재학생 A 씨는 “3만 원이 넘는 전공 도서를 구입하는 것보다 1-2만 원 정도인 한 학기 분의 연체료를 납부하면 더 적은 비용에 해당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연체료가 최대 3만 원으로 제한돼있는 상황이 또한 연체가 심화되는 원인 중 하나라는 것이다. 연체 일수가 500일이 넘어간다는 B 씨는 “지금 당장 반납하는 것과 졸업 직전에 반납하는 경우 모두 연체료가 각각 3만 원으로 같아 굳이 빨리 반납할 동기를 못 느끼겠다”고 밝혔다.

이용 가능한 자료의 수가 적은 것도 연체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도서관에

구비돼 있는 자료의 수가 적어 선불리 자신이 대출한 자료를 반납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도 연체를 부추기는 요인 중 하나라는 것이다. 실제로 설캠 도서관 지난 8월 인기 대출 도서 순위 중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한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 로버트 오펜하이머 평전’과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상실, 사랑 그리고 숨어 있는 삶의 질서에 관한 이야기’의 경우 도서관에 비치된 장서가 각각 2권과 7권에 그쳤으나 예약자는 각각 5명과 4명에 달했다. 이에 명 팀장은 “이용 가능한 자료의 수가 적은 것은 사실이다”고 전했다.

수업자료의 경우 이와 같은 훼손 및 연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존재한다. 현재 도서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정도서’ 제도가 이 중 하나다. 지정도서제도란 매학기 개설교과목 강의에 필요한 도서를 별도 서가에 비치해 많은 수강생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지정도서로 선정될 경우 해당 자료에 대한 대출이 제한된다. 관리가 용이하도록 별도 서가에 비치하고 대출을 막아 수업자료에 대한 훼손과 연체 문제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나아가야 할 방향

자료 훼손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훼손 자료에 대한 도서관의 빠른 인지 및 조치가 가장 필요하다. 이를 위해 도서관 애플리케이션에 자료 훼손 관련 제보를 받을 수 있는 창구를 신설해 학생들이 발견 즉시 제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에 학술정보팀은 해당 방안의 시행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전자 자료 비중을 확대하는 것 또한 하나의 방안이다. 최근 많은 학교의 도서관에서 자료 훼손·연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자 자료를 도입하는 추세다. 전자자료는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아 훼손 문제로부터 자유롭고 대출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반납된다는 점에서 연체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명 팀장은 “전자 자료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증액했으며 앞으로 이를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체의 경우 연체료 제도의 재정비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김가영(응인 23) 씨는 “연체료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연체료를 인상한다면 연체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이와 같이 연체료의 상한 또한 인상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해 연체일수가 300일 이상인 장기 연체자들에게 대해 빠른 반납의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명 팀장은 “지금 수준보다 연체료가 높을 경우 이용자들이 대출 이용을 꺼릴 정도로 부담을 느낄 수 있다”며 연체료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과거 연체료 상한제가 존재하지 않았을 때 이에 대한 유의미한 효과를 체감하지 못했다”며 “고액의 연체료에 대해서 학내 구성원 간 합의 또한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관련 제재 및 규제를 강화하자는 의견에 대해 명 팀장은 “도서관은 원칙적으로 제재와 규제를 지양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도서관을 자유롭게 편안한 공간으로 이용하길 바라며 제재와 규제를 강화한다면 그만큼 학생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을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도서관 자료 훼손·연체 문제를 줄이기 위해선 무엇보다 이용자들의 인식 개선이 가장 필요하다. 이에 대해 명 팀장은 “도서관의 제도적인 조치만으론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순 없다”며 “책을 이용하는 학생들도 도서관 내 자료가 공공재임을 인지하고 사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인식 개선을 달성하기 위해선 도서관 측의 노력도 필요하다. 실제로 성균관대학교 도서관은 훼손 도서 전시회와 같은 행사를 추진해 건전한 도서 이용 문화의 정착을 위해 힘쓰고 있다.

대학 도서관은 대학의 심장이다라는 말과 같이 도서관은 우리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시설 중 하나다. 심장이 혈액 없이 존재할 수 없듯이 도서관 또한 자료 없이 존재할 수 없다. 학내 구성원 모두가 도서관 자료를 소중히 사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할 때다.

철도노조 파업, 갈등보단 돌파구를 찾아야 할 때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은 지난 14일 오전 9시부터 18일 오전 9시까지 4일간 제1차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한국철도공사는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대응으로 고속철도와 새마을호 등의 여객열차와 화물열차를 감축 운행했다. 철도노조 파업의 영향으로 지난 14일 오후 3시 기준 전국 열차 운행률은 평소의 76.4% 수치를 그치기도 했다. 이번 철도파업은 4년 만에 일어난

일이지만 정부가 정당성 없는 파업으로 규정하며 엄정 대응을 예고한 만큼 파업이 종료된 지금도 양측의 갈등은 풀리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철도파업의 쟁점△철도파업으로 인한 문제점△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철도파업의 쟁점

이번 철도노조의 제1차 총파업의 세 가지 주요 쟁점은 △공공철도 확대△교대근무 개선△임금요구안으로 나뉜다. 최근 에스알(SR)이 운영하는 수서고속철도(SRT) 노선이 지난 1일부터 △경전선△동해선△전라선으로 확대되고 경부선 주중 운행은 축소됐다. 철도노조는 수서역 기반 SRT와 서울역 기반 KTX의 분리 운영을 철도 민영화를 위한 수순으로 보고 KTX와 SRT 통합 운영에 필요한 사회적 분석기구를 구성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한국철도공사는 선로 용량과 차량 부족 등 운행 여건과 기반상 미비한 부분이 존재해 통합 운영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며 현행 KTX와 SRT 사이의 철도 경쟁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 측은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 관계자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준비투쟁을 연기하고 중앙노동위원회 사후 조정을 하는 등 최선을 다해왔다”며 “전날 교섭까지 했으나 합의 타결에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철도노조는 지난 1일 국토교통부가 SRT 경부선 수서-부산 간 좌석을 하루 최대 4,920석 감축해 예매 대란이 벌어진 사태에 주목했다. 철도노조에 따르면 대구-대전선과 호남선의 월요일과 토요일 좌석이 각각 평균 1,054석과 410석으로 줄어들었고 국토교통부가 부산 좌석을 늘려 △김천△구미△대전△신경주△울산지역 열차 이용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철도노조는 국토교통부가 사회적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부산에서 수서까지의 노선을 축소하면서 지역갈등과 열차 대란을 유발했다고 비난했다.

교대근무 처우 개선 문제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4조 2교대 전면 시행’ 요구의 경우 철도 안전 관리체계 변경 승인 대상이기에 인력감소에 따른 안전 영향 여부를 전문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여전히 임금요구안을 두고 경제성장률과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해 기본급 월 20만 2천 원 정액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임금 인상안 역시 첨예한 대립을 이루고 있다. 지난 6월 정부의 공공기관 재정 부문 평가에서 최하등급인 E등급을 받은 것이 임금 인상에 있어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한국교통공사는 소요 재원과 현재 재무 여건을 고려할 때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수의 철도노조 조합원은 “정부가 철도경쟁 체제 이유로 논의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건 독단적인 선택이며 사회적 대화를 거부한 것이기에 총파업은 정당한 대응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한국교통공사는 “이번 파업은 수서행 KTX 운행과 고속철도 통합 등 교섭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정부 정책 사항의 변경을 핵심 목적으로 하고 있어 현실성과 정당성이 없다”며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이 상황에서 지난 20일 철도노조가 무기한 2차 총파업을 중단하기로 선언하면서 추석 연휴 기간까지 이어질까 우려했던 열차 축소 운행 등의 ‘철도대란’도 막을 내렸다. 철도노조는 “한국철도공사와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위한 대화를 시작했고 내달 초부터 구체적인 논의 및 구상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2차 총파업’을 중단한다고 밝혀 당초 강경한 신경전을 내세웠던 것과는 달리 일보후퇴하는 모습을 보였다.

◆철도파업으로 인한 문제점

지난 2019년 11월 철도노조는 ‘4조 2교대’ 근무제 도입을 요구하면서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며 같은 달 25일 노사 간 협상 타결로 파업을 철회했으며 그때 당시 화물열차 운행률은 20.7%에 불과해 물류대란이 발생했고 △일본열차△전철△KTX가 각각 △69.6%△82.4%△87.5%의 운행률을 기록해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파업 첫날엔 운행된 36대의 강원지역의 화물열차 중 약 21%만 화물을 실을 수 있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이번 철도노조 파업에 따른 △컨테이너△석유화학△시멘트△철강 등 주요 품목별 수출 영향 등을 점검한 결과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2020년 기준 국내 철도의 화물 수송은 2627만 톤으로 이는 전체 화물 수송 중 14% 수준에 해당하는 비중이다. 시멘트 업계는 지난 2016년에 한 달 이상 걸린 철도파업으로 인해 공장에 쌓여가는 재고를 처리하지 못하는 등 물류 차질이 빚어져 결국 시멘트 생산량을 축소하며 경영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다. 산업부는 파업 장기화를 대비해 수출 등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처와 협력해 비상 수송대책을 모색할 것이라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번 사태로 인해 예기되는 피해는 물류 대란뿐이 아니다. △노약자△외국인△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소외계층이 입을 피해도 우려된다. 실제로 서울역 안내센터 관계자는 파업 이후 많은 시민이 피해를 호소했으며 특히 정보 소외계층의 고령자와 한국어에 능통하지 않은 외국인들의 피해가 컸다고 밝혔다. 그는 “파업으로 인해 일정이 취소되거나 변경되는 열차들에 대해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약 2주 전부터 계속 알림을 보냈지만 이를 이용하지 않는 어르신들이나 뉴스를 통해 파업 소식을 듣지 못했던 분들은 역에 와서 취소에 대해 문의하기도 했고 알림을 보내도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외국인들은 역에서 우왕좌왕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시민들의 경우엔 출퇴근과 등교를 위해 대중교통으로 열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하지만 지난 14일 여러 차례 열차가 지연되며 많은 시민이 불편을 경험했다. 우리학교 학생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통학을 위해 1호선을 이용한다고 밝힌 최선우(사회·정외 23) 씨는 “아침엔 파업을 실감하지 못했는데 하교를 위해 열차를 기다리다가 1시간 이상 지연되고 있다는 지인의 연락을 받고 학교 도서관으로 돌아왔다”며 “하루빨리 총파업이 끝나 어려움 없는 일상을 되찾고 싶다”고 전했다. 우리학교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경의중앙선△1호선△3호선△4호선 역시 모두 파업으로 인해 지연되면서 수업 시간에 제때 도착하지 못하거나 하교에 어려움을 겪은 학생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나아가야 할 방향

철도노조 파업이 철도 민영화와 깊은 관련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논의 역시 심도있게 다뤄져야 한다. 철도 민영화 개혁을 시도했던 대표적인 국가는 영국이다. 영국의 철도 민영화는 철도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종전에 영국철도공사라는 하나의 조직으로 운영되던 철도 산업이 △선로 회사△유지·보수 회사△여객 운행 회사△열차 임대 회사△화물 운송 회사 등 기능과 지역에 따라 다양한 관리주체로 분할됐다. 기업을 시장에 들임으로써 민간과의 경쟁을 극대화한다는 것이 그 명분이었다. 이후 철도 민영화가 단행되며 영국 보수당 정부는 매각 수입을 챙겼다. 철도 시설을 소유한 레일트랙(Rail track)은 선로 독점력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성과를 이뤘다. 열차를 운행하는 25개의 민간 회사도 정부 보조금을 받으며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했으나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왔다. 철도 교통의 생명인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레일트랙으로부터 외주 업무를 맡은 유지와 보수 회사가 비용을 아끼기 위해 선로 균열을 방치했던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철도 민영화에 앞서 이러한 안전 문제 역시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

정부가 한국철도공사에 대해 대대적인 개혁에 착수하기로 한 것은 오래일 내부가 국민 안전보다 노조의 정치적 영향력 유지를 더 우선시하는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란 지적이 따른다.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민영화라는 실제 없는 명분을 내걸며 국민을 불모로 삼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한국철도공사 관계자는 “7년 전 출범한 SRT는 KTX보다 싼 요금과 승무원 호출이 가능한 앱 구축 등 앞선 서비스로 KTX를 긴장시켜 메기 효과를 낳은 사례가 있다”며 “경쟁체제를 없애고 독점으로 돌아가자는 건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고 언급했다.

1차 총파업에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총동원령을 내렸다. 그리고 이용 수요가 많은 출퇴근 시간 광역 전철과 KTX에 대체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했다. 아울러 정부는 버스과 택시 및 대체 교통수단도 최대한 확보해 열차 부족을 △고속버스△시내버스△시외버스를 통해 메꾸고 실시간 혼잡도를 관찰하면서 예비·전세버스 투입 여지를 열어놓기도 했다. 이러한 정부의 대처에 대해선 긍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이다. 철도노조는 지난 19일 성명을 통해 “철도 노사와 국토부는 협의를 통해 대화를 시작하고 오는 10월 초부터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것을 결정했다”며 “방안 수립을 위한 자리가 마련된 만큼 준비했던 2차 파업 일정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는 10월 초부터 △국토교통부△철도노조△한국철도공사 등이 모여 협의할 예정이다. 추석을 앞두고 정부와 노조의 격양된 역압과 저항보다는 따뜻한 화해로 명절을 맞이하는 게 바람직한 그림일 것이다.

성민욱 기자 07minwook@hufs.ac.kr

www.사사한줄토막.com

정치 | 감사원, 전 정부 통계청 조사에 여야 갈등 가속화

지난 15일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청와대△통계청 등이 △고용△소득△집값 관련 통계를 수년간 반복적으로 조작했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밝혔다. 지난 17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업으로 치면 분식회계를 한 것과 다르지 않다”며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도 회계조작에 가담한 공범이 되는 셈이다”고 전했다. 반면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통계조작이라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은 감사야말로 국가문란을 초래하는 행위다”며 “감사원이 감사를 명목으로 존재하지도 않는 혐의를 조작한 것이다”고 반발했다.

사회 | 추석 특별방범, 공항·기차역에 경찰특공대 투입하기로 해

지난 17일 경찰청은 지난 1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총 16일간 추석 명절 특별방범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사람이 많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기차역△주요 공항△터미널 등에 경찰특공대와 지역경찰을 투입해 순찰을 강화한다. 경찰청은 이 기간 동안 △귀금속점△편의점△환전소 등 범죄에 취약한 영업소에 대한 순찰을 강화한다. 또한 통행량이 증가하는 추석을 맞이해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고속도로 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 안전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경제 | 한전 부채 200조 돌파, 하루 이자는 70억 넘어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부채가 사상 처음 200조를 돌파했다. 전기요금 인상이 단행됐음에도 이번 해에만 7조 원대에 달하는 영업 손실이 예상되며 향후 한전의 부채규모는 점점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지난 8월 한전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한전의 총 부채는 201조 4,000억원으로 국내 상장사 부채 중 최대 규모다. 한전은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전력 구매 비용 증가에 대응해 전기요금을 인상해 재무구조 개선에 나설 계획이지만 이미 이뤄진 잦은 요금 인상으로 추가 인상엔 적잖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 | 북·러 정상회담, 4년 만에 개최해

지난 13일 보스토니치(Восточный) 우주기지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두 정상이 정상회담을 가졌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한과 유엔(UN)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와 같은 국제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력이 가능하다”며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 어떤 합의도 위반하지 않을 것이다”고 언급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출신인 믹 멀로이(Mick Mulroy) 전 국방부 부차관은 BBC에 “러시아가 이번 협정을 성사시키기 위한 대가로 핵무기와 그 운반시스템에 관한 전문지식을 교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한·미·일 3국은 북·러 회담의 결과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를 이어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지난 7월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 그동안 ‘TV 수신료’를 명목으로 전기요금 청구서에 일괄적으로 포함돼 징수됐던 수신료가 분리됐다.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별도로 분리해 납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개정안이 의결된 후 TV가 없는 가정엔 수신료에 대한 환불을 진행하고

별도 신청을 통해 국민들의 수신료 분리징수가 이뤄지고 있다. 이번 수신료 분리 징수에 관해 최우정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를 만나 자세히 알아보자.

최우정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Q1. 수신료 분리징수란 무엇인가요?

수신료는 공영방송의 운영재원으로 사용되는 기금으로 TV 수상기를 보유한 사람이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특별부담금이에요. 지난 7월 5일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까진 방송법 제67조에 근거해 방송 수신료를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전기사용료 납부 고지서에 함께 기재해 징수하는 소위 병합징수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죠. 그러나 정부는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신료 징수를 위탁받은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해 수신료를 징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수신료 분리징수를 도입했어요. 수탁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징수행위와 수신료의 결합을 금지하고 수신료를 별도로 징수하도록 하는 것이 분리징수의 골자입니다.

Q2. 수신료 분리징수 제도가 도입된 역사가 궁금합니다.

초기엔 KBS가 수신료를 직접 징수하는 방식이었어요. 이후 지난 1994년부터 현재까지 한전에 위탁해 징수하고 있죠. 그동안 한전은 수신료를 자사의 전기사용료 고지서에 함께 고지해 병합징수해 왔어요. △직접징수△병합징수△분리징수 순으로 징수 방식이 변화했습니다. 그러다 현 정부에서 처음으로 분리징수 제도를 도입했죠. 즉 우리나라의 경우 분리징수 제도는 현 정부에서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Q3. 현재 수신료 분리징수가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수신료를 분리징수할 경우 방송수신료의 징수액이 병합징수체제보다 줄어들어 공영방송의 재정적인 기반을 약화시키고 공영방송의 본질적인 역할과 기능 수행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영방송은 △국가△기업△정부△정당△사회단체로부터의 경제적 독립성을 갖춰 운영돼야 방송의 객관성과 실질적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 예로 EBS도 수신료의 지원을 받고 있죠. 만약 분리징수를 통해 재정상태가 악화된다면 이는 정부가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셈이 됩니다. 즉 물적 독립을 통한 방송의 자유를 주장하는 공영방송사와 정부가 대립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 이외에도 이번 개정은 여러 법적 쟁점을 안고 있어요.

Q4. 김의철 KBS 사장(이하 김 사장)에 대한 해임안 의결과 수신료 분리징수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KBS 이사회의 김 사장에 대한 해임 제정 사유로는 표면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제시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직무유기와 리더십 상실’이에요. 그런데 이 해임제정 사유엔 모순점이 있죠. 분

리징수 제도를 시행하면 KBS의 수신료 징수액이 줄어들어 프로그램 △기획△제작△편성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할 수 있어요. 따라서 김 사장은 수신료를 확실하게 징수할 수 있는 방법으로 현재의 병합징수를 고수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사유에 근거한 해임은 오히려 이사회가 KBS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결국 김 사장에 대한 해임 제정 사유에 해당하는 ‘분리징수 관련 직무유기’는 해임과는 아무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요.

Q4-1. KBS의 주요 수익원이 수신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KBS의 재무 구조 현황은 어떠한가요?

세계 각국 공영방송의 주된 재원은 수신료예요. △독일△영국△오스트리아 등의 공영방송은 수신료를 제1의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의 경우 수신료 수입이 전체 재원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KBS의 경우는 지난 20여년 동안 수신료 인상이 동결되며현재는 △수신료 45%△순수 자체수입 54%△정부보조금 1%로 재무구조가 구성돼 있어요. 이중 순수 자체수입은 방송광고를 주된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론상 현재 공영방송으로서의 KBS의 재무구조는 비정상적인 것이죠.

Q5. 수신료 분리징수의 필요성과 예상되는 문제점은 각각 무엇인가요?

정부가 분리징수를 도입한 취지는 국민들이 수신료 징수 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하게 알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어요. 그러나 이미 전기사용료 납부고지서에 수신료를 명백히 별도의 항목으로 고지하기에 정부가 내세운 분리징수의 근거는 설득력이 약하고 특별히 도입해야 할 필요성도 없다고 판단됩니다. 공영방송사의 운영재원 확보를 어렵게 한다는 것을 제외하고도 수신료 분리징수에는 많은 법적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이번에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은 △입법목적이 부당하다는 점△상위법인 법률에서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내용을 하위법령인 시행령에서 정한다는 측면에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는 점△징수수탁자의 고유업무와의 병합징수를 금지하지만 ‘고유 업무’가 무엇인지가 분명하다는 점 △징수수탁자가 위탁업무를 수행하면서 얻게 되는 수수료 이익을 박탈해 사업자의 직업행사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위헌성의 소지가 높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Q6. 수신료 분리징수에 관한 정부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분리징수에 대한 한전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까진 없습니다. 공기업을로서 정부의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내기 어려운 실정이죠. 다만

징수를 수탁한 한전은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행사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 자유권의 내용인 계약자유 원칙을 가지는데 이 분리징수는 KBS와 한전 간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어요. 특히 이 시행령으로 인해 방송수신료 징수비용이 현실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한전에 대한 직업행사의 자유와 재산권의 침해가 발생할 소지가 큼니다.

Q7.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KBS의 입장은 어떤가요?

KBS는 자사의 홈페이지에서 수신료 분리징수가 공영방송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기애 수신료 징수 방식의 변경엔 보다 면밀하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Q8. 수신료 분리징수를 함으로써 소비자가 얻는 이점은 무엇인가요?

수신료는 방송법에 근거해 TV수상기를 소유한 국민이 납부해야만 하는 의무로서의 특별부담금입니다. 만약 납부하지 않으면 지체에 따라 가산금이 부과되는 일종의 준조세와 비슷한 성격을 갖죠. 정부가 밝히는 수신료 분리징수의 목적인 국민들이 수신료 징수 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하게 알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주장은 기존의 병합징수체제에서도 달성 가능한 것이기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칫 국민들이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을 초래해 수신료와 관련한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어요.

Q9. 수신료 분리징수의 향후 전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수신료 분리징수를 실시하면 운영재원 확보가 어려워져 KBS가 공영방송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없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국민들이 획일적이고 단일화된 정보만을 수용할 수밖에 없어 다원화된 사회에서 개인의 다양한 인격발현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KBS의 재원결정이 정부에 의해 이뤄지게 돼 공영방송이 정부의 선전도구로 전락하고 정부정책의 홍보기관 역할만을 수행하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공영방송의 폐해는 결국 우리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할 수도 있죠. 현재 KBS는 헌법재판소에 분리징수를 강제하는 방송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황이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이 문제의 귀추가 결정될 것입니다. 분리징수에 얽힌 많은 법적 문제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기존의 입장을 급격하게 선회하지 않는 한 분리징수 제도는 위헌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큼니다.

지유솔 기자 07yusol@hufs.ac.kr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그들과 열매를 나눌 수 있는
거목과 같은 사회공헌기업(CSR)을 지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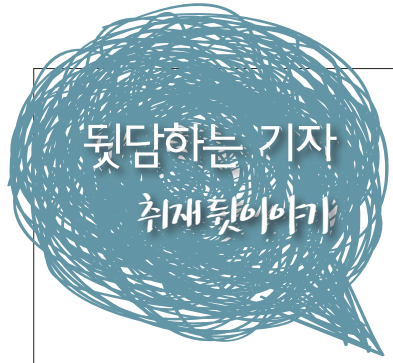


Forbes Asia's 200 Best Under A Billion
10th Sep. 2009/ 1st Sep. 2010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2년 연속 포브스가
뽑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200대 유망 기업
(Asis's 200 Best Under A Billion)에 선정 되었습니다.

국내 뿐 아니라 세계 40여개 국에 수출하는
한국인이 주인이 다국적 제약기업입니다.
예술문화사업, 글로벌 인재육성사업,
여러나라에서 펼치는 다양한 사회봉사활동
등을 통해 세계 도처에서 한국의 열과 문화를
수출하는 글로벌 사회공헌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다국적 제약기업
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
www.kup.co.kr



세상이라는 바다를 향해, 끝없이 항해하자

입학 전 우리학교에서 진행했던 신입생 아카데미에 참여한 적이 있다. 전입교수였던 가정준 우리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은 “대학에선 배와 바다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며 “우리학교에서 바다와 그곳에서 어떻게 항해할지에 대해 같이 고민해 보자”고 하셨다. 그곳에서부터 난 세상이라는 큰 바다에 첫발을 닦았다.

대학 입학 후 나는 방황하는 아이 그 자체였다. 고등학교 3년 동안 미래에 대해 구상했던 것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 들기도 했다. 대학 생활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들었고 내가 만들었던 배는 부서져 가고 있었다.

그렇게 한 학기를 아무런 소득 없이 보내고 있었다. 이대로 첫 학기를 끝내기엔 나 자신이 용납하지 못할 것 같아 언젠가 있었던 다양한 경험을 하자는 다짐을 다시 되새겼다. 그러던 중 외대학보 107기 수습기자를 모집하는 공고를 봤다.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결국 날 외대학보로 이끌었다.

가볍게만 생각했던 학보사 생활엔 생각보다 많은 책임감이 뒤따랐다. 취재하는 과정도 순탄치 않았고 인터뷰에 쉽게 응해주는 학생도 많지 않았다. 기사 마감을 위해 밤을 새는 것도 체력 소모가 컸기에 힘들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107기 동기들과 대화하며 많은 것들을 배우기도 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만난 원어민 친구는 내 기사를 보고 학내 문제에 대해 인식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어 공부에 도움이 되는 매체를 찾은 것 같이라며 기뻐하고 고마워했다. 그 말에 뿌듯함을 느끼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기사를 더 잘 써야 한다는 생각에 부담도 크게 다가왔다. 그래도 누군가가 내 글을 읽고 그 글이 타인에게 도움이 됐다는 사실만으로 내겐 너무나 큰 행복이었다.

돌아켜보면 이제껏 학보사 활동을 하면서 힘들다고 느꼈던 적은 많지만 좌절했던 적은 없었다. 항상 학내 문제나 사회적 문제를 유심히 살펴보고 매번 기록할 만큼 열심이 있었다. 또 여태까지 제안서 회의에서 내 제안서는 매번 통과됐고 기사 작성에서 힘이 들었던 적도 없다. 그러나 이번 1084호 제안서 회의 때 처음으로 제안서가 반려됐다. 거절당하는 건 생각 그 이상으로 마음이 저리는 일이었다. 이는 외대학보에 들어온 이후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다. 하지만 생각해 보니 △절망△좌절△후회보다 큰 감정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건 아마도 약간의 희열이라고 할 수 있을 감정이었다.

이번 제안서 회의에서 제안서 반려라는 큰 시련을 겪고 나니 이제 뭐든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한 번의 절망이 또 한 번의 잠재력을 낳은 셈이다. 쓰러져도 절망 속에서 계속 무언가를 하려는 의지와 실행력만 있다면 난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이 내 원동력이 아닐까. 어쩌면 이 원동력을 가지고 더 먼 곳을 향해 항해할 수 있지 않을까. 외대학보 활동을 통해 내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고 많은 꿈들이 생겼다. 지금 난 나라는 사람에 대해 더 고민해 보고 앞으로의 미래를 끊임없이 구상해 나가고 있다. 학보사에서의 경험은 내가 더 멀리 항해할 수 있도록 하는 파도가 돼 주는 것 같다. 앞으로 외대학보에서 그러할 3학기 동안의 내 모습이 기대된다. 아쉬움은 있어도 후회 없이 즐기고 갈 생각이다. 앞으로 나만의 배를 통해 세상이라는 바다로 끝없이 항해할 것이다.



장휘영 기자

[책 ‘동아시아 국제정치와 북한’을 읽고] 국제정치와 한반도,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

북한은 구소련의 해체 이후에도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표방하며 민족주의를 명분으로 국제 사회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1948년 국가 수립 이후에 자신들의 확고한 정체성을 보여주는 주체사상을 통해 1990년대의 탈냉전 흐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수뇌부에 대한 눈에 띄는 위협 없이 버텨온 존재라고 있다. 북한의 주민들은 철저하게 사상이 세뇌돼 개인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고 북한의 체제 우월성을 인정할 것을 맹목적으로 강요당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일부 국가를 제외한 다른 해외 국가와의 교류를 차단하고 스스로를 자주적이라고 칭하며 고립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이 점을 명분으로 삼아 북한은 국제 사회의 강력한 경고에도 핵실험을 여러 차례 진행하고 있고 우리나라에 무인 잠찰기를 보내며 일방적인 군사작전을 수행한 바가 있다. 최근엔 북·러 정상 회담도 진행하면서 국내외적으로 진영논리를 조장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모습은 우리나라와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국가의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민생에 직결되는 복지나 권력을 견제해야 할 기관들도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총체적 난국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런 북한의 불안정한 체제와 더불어 지도부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정책 결정을 고려할 때 그들이 말하는 민주주의의 허구성은 명백하다. 이는 국제 사회에서 통용되는 보통의 민주주의의 개념과는 상이하기 때문이다. 비록 남과 북이 한민족으로서 조선을 비롯한 한반도에서의 역사를 함께 한 전적이 있더라도 세계는 급변화하고 다원화됐음이 자명하다. 이러한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북한은 고립됐으나 우리나라는 개방과 자율성을 내세우며 꾸준히 발전해왔기

에 이로 인한 시간적 간극은 좁히기 쉽지 않은 과제로 남아있다. 북한이 진정으로 우리나라와 한민족이라는 생각으로 화해와 평화를 지향하는 태도를 견지한다는 점엔 언제나 의심의 눈총을 거둘 수 없다. 그들은 핵을 통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 강대국으로부터 관심을 받고 자신들의 정권의 주체성과 주권을 인정받으려 한다. 이런 상황이 심화될수록 남한과 미국은 북한의 이어지는 대남 도발과 핵실험과 같은 무모한 군사적 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하고 공조함으로써 상호 신뢰가 더욱 쌓이게 된다. 결국은 북한이 경계하는 한·미 동맹은 더욱 굳건해져 연합훈련의 위상 또한 올라간다. 현재 북한의 지속적이고 위협적인 대남도발의 행태로 볼 때 그들은 우리를 소중한 한민족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정권 세습에 필요한 정당성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것처럼 보인다. 민족적 정체성은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중요한 정치적 요소이자 일정한 영토 내에서 문화와 역사를 공유해 전통과 정체성을 이어나가고자 하는 정치적 구성원들의 암묵적 합의다. 헌법상으로도 민족이란 같은 △문화△언어△역사△혈통을 바탕으로 같은 지역에 살면서 강한 연대감이 있는 사람들의 정치적 공동체를 말한다. 정치적 공동체에선 이성적이고 개인과 개인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한 담론을 통해 체계를 구축하고 더 나아가 공동의 목표를 가진 단일 협력체로서 기능하는 국가를 형성한다. 더불어 공공육을 제공하고 여러 문화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정체성을 강화하려는 국가의 노력이 궁극적으로 민족적 정체성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성민욱 기자 07minwook@hufs.ac.kr

[영화 ‘내겐 너무 소중한 너’를 보고] ‘한국의 헬렌켈러’를 위한 따뜻한 사회

영화 ‘내겐 너무 소중한 너’는 돈만 쫓는 ‘재식’과 시·청각 장애를 가진 아이 ‘은혜’가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재식은 무명 가수를 데리고 다니는 소형 기획사의 대표로 어느날 재식의 회사 소속 가수인 ‘지영’이 실직사를 하게 된다. 지영이 자신에게 빚진 돈을 받아내기 위해 재식은 죽은 지영의 집으로 찾아가고 이때 처음으로 은혜의 존재를 알게 된다. 그러나 은혜는 보통 아이들과는 달리 재식의 부름과 인기척에 반응하지 않았다. 심지어 재식과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다. 홀로 집에만 있는 은혜는 오직 축감으로만 식탁 위에 놓인 빵을 찾고 벽을 다듬으며 화장실을 찾아가다. 이후 은혜의 집으로 집주인이 찾아오고 재식은 지영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고자 은혜의 보호자 행세를 하기 시작했다. 재식은 아동학대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 은혜에게 빵 대신 짜장면을 먹이고 은혜를 씻기려 했으나 이 모든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 은혜는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기에 낯선 이에 대한 경계가 심했기 때문이다. 재식 또한 어린 아이의 마음을 다루는 것에 익숙지 않았기에 이 둘은 한동안 서로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재식은 은혜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손끝으로 대화를 시도하기 시작했다. 맨 처음 은혜에게 알려진 단어는 ‘아빠다. 조그마한 은혜의 손바닥에 자음과 모음을 차근차근 써주면 은혜는 다시 재식의 손바닥에 단어를 쓴다. 재식이 이런 방법으로 어둠기만 했던 은혜의 세상에 새로운 단어를 알려주면서 둘 사이의 유대감은 차츰 두터워진다. 재식은 은혜를 보육시설로 데려가지만 시·청각 장애인인 은혜는 그곳에서 진행되는 어떠한 교육에도 적응하지 못한다.

우리나라 현행법상 아직까지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교육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시각 장애 아동과 청각 장애 아동 각각을 대상으로 한 수업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영화 속 이 장면은 우리나라 시·청각 장애인들이 겪는 현실을 잘 보여준다. 실제로 우리나라엔 현재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독립적인 법제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 법안은 국회에서 여전히 계류되고 있으며 이에 시·청각 장애인들은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19년 10월 시·청각 장애인 지원에 관한 법적인 근거로 장애인 복지법 개정안이 마련됐다. 이에 시청각 장애인에 대한 △의사소통 보조기구 개발 및 보급△전문인력 양성 및 파견△지원 전담기관 설치 등에 관한 조항이 개정됐다. 그러나 독립 법안이 부재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다. 우리나라엔 현재 약 1만 명의 시·청각 장애인이 존재함에도 이들을 위한 △교육△돌봄△의료△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지원 체계가 아직까지 마련돼 있지 않다. 이 영화는 약자들의 닿지 않는 목소리를 담아 사람들에게 시·청각 장애인이 살아가기 힘든 세상을 알렸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될 수 있다. 한없이 갑갑하고 고요한 시·청각 장애인들의 세상에 더불어 사는 이웃과 따뜻한 사회만이 한 줄기 빛이 되어 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영화를 계기로 사람들이 시·청각 장애인들에 보다 따뜻한 관심을 갖고 이들에 대한 사회의 적극적인 지원도 활발히 이뤄지길 고대한다.

김나림 기자 07narim@hufs.ac.kr

1083호 학보를 읽고 진심을 담아

기승을 부렸던 더위가 가시고 어느새 추분을 맞이하고 있는 9월이다. 학교와 학생들은 모두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기 위해 분주히 변화하고 있다. 외대학보는 이러한 변화의 한가운데에선 학내 구성원을 위해 학교의 다양한 모습을 담아냈다. 3면에선 우리학교 구성원의 분실물 관련 문제와 교내 화재 관리 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개강 후 캠퍼스를 이용하는 인원이 증가하자 분실물의 양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학교에선 자체적으로 분실물 관리 부서인 원스톱서비스센터(One-stop service center)를 운영하고 있으나 학교 구성원들 대부분은 센터의 존재 여부조차 모르는 실정이다. 기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분실물 관리 부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분실물 센터에 대한 학교 구성원의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3면의 후속보도 기사를 통해 우리학교 화재 관리 시설의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었다. 외대학보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양 캠퍼스(이하 양캠퍼) 시설관리팀에서 △소화기 및 소화전 관리△스프링클러 관리△화재 관련 안전 훈련 등 안전 예방을 위해 다방면에 걸친 노력을 전개하고 있었다. 학교 측이 앞으로도 학내 구성원의 안전한 캠퍼스 생활을 위해 끊임없이 변화의 가능성을 모색하길 바란다. 4면에서 다룬 교강사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은 오랜 기간 우리학교의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양캠퍼스에서 운영되고 있는 AI 융합전공은 설립 이후 오랜 기간 교강사 부족 문제로 인한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수강 신청

시기부터 원하는 수업을 듣지 못해 불편을 경험하고 있다. 이는 비단 AI 융합전공만의 문제가 아니다. 현재 독일어교육과 및 우리학교의 필수 교양 과목으로 꼽히는 컴퓨팅사고 수업 등 다양한 분야의 수업이 교강사 부족 문제로 봉착해 폐강되고 있다. 다음 해 우리학교에 AI 융합대학이 신설되는 만큼 인공지는 관련 과목에 대한 교강사 충원을 위해 학교가 다방면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5면에선 재수강 학점 제한 제도에 대한 학내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담겼다. 현재 우리학교 규정에 따르면 재수강 학점은 최대 21학점으로 제한돼 있지만 이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다른 학교에 비해 우리학교의 재수강 학점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많은 학생들이 우리학교의 재수강 학점 관련 규정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재수강생과 조수강생 사이의 형평성 유지와 학점 인플레이션(inflation) 방지 등의 이유로 재수강 학점 제한을 완화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구성원 역시 존재한다. 학교에선 재수강 학점 제한 제도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하기 앞서 양측 모두의 입장을 헤아려야 할 것이다. 외대학보 1083호에서 다뤄진 주제들은 그 중요성에 비해 조명되지 않았던 내용을 담고 있다. 학생이라는 이름에 앞서 기자의 신분으로 독자를 위한 글을 쓰는 것은 분명 쉽지 않은 일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외대학보 기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전한다.

1083호 학보를 읽고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며

개강과 더불어 흥취를 돋우는 다양한 축제와 행사들이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학교와 사회엔 즐거운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일 또한 산적해 있다. 외대학보 1083호에선 학내 사안과 우리 사회에서 활발히 제기되는 현안을 모두 다루고 있다. 우선 3면에선 교내 분실물 센터의 인지도가 저조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개강 후 우리학교 재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엔 분실물 관련 게시물이 이번 학기에만 50개 정도 게시됐다. 이에 비해 원스톱서비스센터(One-stop service center)에 신고된 분실물 수는 서울캠퍼스와 글로벌캠퍼스를 통틀어 각각 3건에 불과했다. 이는 분실물센터가 많은 학생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한편 우리학교 원스톱서비스센터는 분실물 센터에 관한 홍보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홍보 계획이 부재한 상황에서 학생들이 조금 더 쉽게 분실물을 신고하고 찾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이 대해 논의해야 할 것이다. 4면에선 교강사 부족으로 인해 학생들이 겪는 불편함에 대해 다루고 있다. 실제로 우리학교의 융합전공 중 하나인 AI 융합전공의 경우 교강사 부재로 강의가 폐강됐다. 이는 교강사에 대한 대우가 미흡해 수요가 높아도 교원의 충원이 어려운 현실에서 비롯된 현상이다. 다른 대학에서도 교강사 구인난으로 인해 강자가 폐강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교강사 부족 문제는 학생들의 학습권과도 직결돼 있는 만큼 교강사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타협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7면에선 귀향길 교통편 부족 문제에 관한 문제가 논의됐다. 추석을 앞두고 추석 승차권 사전 예매에서 표를 예매하지 못한 학생들이 곤란한 상황에 놓여있다. 이처럼 모두가 즐거워야 할 명절에 분가에 돌아가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학생들의 모습은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승차권 확보에 실패한 학생들은 결석까지 감수하며 귀향길에 오르기도 한다. 이에 교통편 확충에 관해 정부와 교통업체 사이의 꾸준한 논의가 필요하다. 8면에선 우리 사회의 추락한 교권에 대해 다루고 있다. 지난 7월 23일 서울 서초교 교사의 자살에 이어 지난 3월엔 경기도 용인시에서 고등학교 교사가 지속적인 학부모 민원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처럼 현재 우리나라에선 교권이 추락하는 양상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교권 침해의 현상은 아동학대의 기준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하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또한 학부모가 제기하는 각종 민원들을 교사 개인이 오토이 전담해야 하는 민원 대응 체계 또한 문제점으로 꼽힌다. 교육부는 학부모 민원에 대한 대응을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 차원에서 전담하도록 기존의 체계를 재정립해야 할 것이다. 외대학보 1083호에선 우리학교와 사회에서 시급히 논의돼야 할 의제를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 특히나 최근에 화두가 된 교권 침해 문제가 심층적으로 다뤄지고 있어 해당 사안에 대한 독자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있다. 다양한 사안에 대해 △사례△원인△해결방안을 심층적으로 취재한 외대학보 기자들에 아낌없는 응원을 보낸다.



꿈꿀 수 있다면 어디라도

국 · 부장 고정칼럼

이번 학기가 개강한지 이제 어언 한 달이 돼 간다. 기온이 내려가며 완연한 가을이 찾아온 캠퍼스는 북적이는 학생들로 활기를 띤다. 특히 ‘트로이카(TROIKA)’와 ‘퀸쿠아트리아(QUINQUATRIA)’ 같은 축제가 연이어 개최되면서 학생들의 모습엔 희색이 가득한 듯 하다. 한편 학보사실은 언제나 전원이 감도는 분위기다. 제안서 회의부터 최종적인 마감과 수정 작업에 이르기까지 기자들의 표정과 태도는 사뭇 진지하다. 한 호수가 무사히 발행될 때까지 기자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다. 글의 무게, 말의 무게를 자각하고 있는 까닭이다.

매 학기 수습기자를 선발할 때마다 외대학보의 정체성에 관해 누누이 강조하는 내용이 있다. 곧 학보는 동아리가 아니라 우리학교를 대표하는 학내 언론기구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규정은 자연스럽게 학내 언론, 더 나아가서는 언론 일반의 본령에 대한 자문(自問)으로 이어진다. 외대학보가 우리학교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해야 하고 어떤 역할을 자처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의문에 관해 내가 내린 결론은 언론의 역할은 ‘더 나은 현실을 꿈꾸는 것’에 있다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당연하게만 여겨지던 것을 당연하지 않다고 선언하는 것이 언론의 임무다. 물론 단순한 선언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대안을 모색하고 담론의 장을 구축하는 일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학내 언론기구’로서의 외대학보에 주어진 사명일 것이다.

외대학보는 더 나은 현실을 꿈꾸기 위해 언어를 수단으로 우리학교와 사회 곳곳에 존재하는 문제를 가시화하고 조명하려는 실천을 멈추지 않는다. 물론 ‘더 나은 현실을 꿈꾸는 일’이 마냥 순탄한 것

만은 아니다. 비협조적인 취재원과 밤을 지새우며 진행되는 마감 작업 등 한 호수의 발행을 이뤄내기까지 수많은 고난과 역경의 순간들이 존재한다. 또한 노력의 결실이 학생들로부터 외면받는 모습을 보며 회의감을 경험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기자들은 이러한 난관을 각자의 방식으로 견디며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해낸다. 때때로 좌절과 희열을 느끼기를 거듭하면서, 그리고 내겐 그 모습이 가히 아름답고 대견스럽게 느껴진다.

이번 1084호에선 우리학교와 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현안들이 논의됐다. 우선 우리학교에서 이중·부전공은 전공심화과정을 선택하지 않는 한 사실상 졸업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임에도 학과에 따라 이중·부전공생 전용 강의가 부재해 성적 평가에 있어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중전공 변경 횟수를 최대 1회로 제한하고 있어 학생들이 불편을 겪는 등 다양한 제도상의 허점을 갖고 있다. 학생의 선택권 및 학습권 강화라는 이중·부전공 제도의 본래의 취지를 되찾기 위한 우리학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우리학교 공공인재개발원 운영 문제나 도서관 관내 자료 연체·훼손 문제로 인해 학생들이 경험하는 고충에 관한 내용도 다뤄졌다. 이러한 분석들이 학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학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외대학보는 지금껏 그래왔듯 더 나은 현실을 꿈꿀 수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 달려갈 것이다. 앞으로 이어질 외대학보의 여정에 독자 여러분도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켜봐주길 바란다.

송성윤 부장 06sysong@hufs.ac.kr



부엉이 메신저



송아!! 항상 네가 그리울 거야. 언제나 밥 든든하게 먹고 근육도 키우고 건강해야 한단다. 네가 그리울 때마다 너와 함께 봉송아 물 들였던 손톱을 보며 너를 떠올릴게. 그리고 이 메세지 본다면 半沢, 당장 연락줘

-익명-

ㅈㅁ아 ㅇㅇ 대학에서 처음으로 속 터놓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생겨서 너무 좋음. 똘 고딩 때 친구같아 ㅋㅋ 난 언제나 네 편이니까 항상 힘든 거 있으면 늘 그랬듯이 다 털어줘라 항상 좋아하고 응원하고 있음 파이팅!

-또다른 ㅈㅁ아-

우리학교 영상동아리 insert(insert)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insert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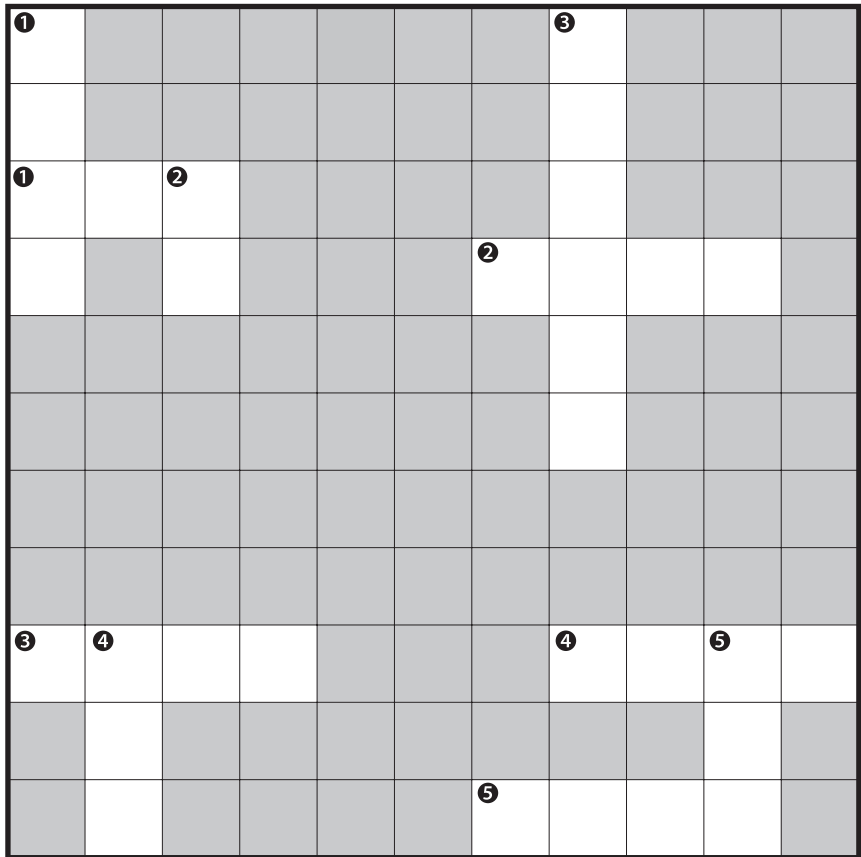
-익명-

졸업을 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멋진 선배가 되겠습니다 아좌좌 화이팅

-추가하기를 앞둔 4학년-



십자말풀이



가로

- 정치적 ○○○에선 이성적이고 개인과 개인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한 담론을 통해 체계를 구축하고 더 나아가 공동의 목표를 가진 단일 협력체로서 기능하는 국가를 형성한다. (10면 참조)
- 지난 15일 우리학교 ○○○○ 연구사업단은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대학본부 대회의실에서 EU연구소발트연구소 및 러시아 연구소와 공동으로 제1차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1면 참조)
- 이번 ○○○○의 제1차 총파업의 세 가지 주요쟁점은 △공공철도 확대△교대군무 개선△임금요구안으로 나뉜다. (8면 참조)
- 지난 1025호 심층기사에선 ○○ ○○ 및 매매로 인한 문제를 다뤘다. (3면 참조)
- 수신료는 경영방송의 ○○○○으로 사용되는 기금으로 TV 수상기를 보유한 사람이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특별부담금이예요. (9면 참조)

세로

- 의 경우 한 학기당 2회에 한해 인정된다. (3면 참조)
- 지난 1월 박정은 우리학교 총장은 우리학교와 하노이국립대학교 간의 업무협약 ○○을 위해 베트남 현지에 방문했다. (2면 참조)
-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된 ○○○○○은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지혜의 여신 미네르바를 기념하는 로마인들의 축전 이름에서 비롯됐다. (2면 참조)
- 우리학교 ○○○은 학교 구성원들에게 필요한 △학습 자료△ 수업 자료△수업에 활용되지 않는 일반 자료△전자 자료 등 방대한 종류와 분량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7면 참조)
- 우리학교에선 서울캠퍼스와 글로벌캠퍼스 모두 각각 ○○○을 통해 △공무원△언론인△전문직과 같은 직업을 목표로 하는 연구실원을 선발해 운영하고 있다. (5면 참조)

※파uzzle에 정답을 적으신 후 촬영해 외대학보 인스타그램 계정 (@hufspress_official)을 팔로우 하신 후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정답을 맞추신 두 분에 한해 아메리카노 교환권을 드립니다.



사설

우리는 어떤 미래를 상상하는가?

우리는 늘 미래를 바라본다. 오지 않는 내일 일을 미리 걱정하고, 내일을 설계하느라 오늘을 바쁘고 분주하게 보낸다. 비전이나 꿈을 이야기할 때도 늘 미래를 이야기한다. 다가올 미래에 대해 미리 상상하는 일은 즐겁기도 하고 고단하기도 하다. 미래는 예측이 불가능하고 불확실하기에 누구도 선명하게 말하기를 주저한다. 미래를 예견하는 일은 현재와 과거를 엄정하게 돌아보는 시선이 함께 있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는 방식은 어제 일은 무조건 지우면서 미래에게 달려 나가는 식이다.

올 봄, 여름 내내 AI가 물고 올 미래의 변화에 대해 지금 내 공부와 교육 안에서 예측하고 진단하느라 바쁘게 보냈다. 문해력, 읽기와 쓰기의 일, 정보를 접하고 나누는 일에 앞으로 변화의 폭은 매우 크겠지만, 자료를 받아들이고 때 차이를 아는 능력, 제대로 질문하는 일, 개인을 넘어 함께 가는 공동의 공간을 만드는 훈련을 교육의 장에서 할 때, 새로운 디지털 감각과 함께 여전히 전통적인 읽기와 질문 방식이 유효함을 확인했다. 다름을 받아들이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복합적인 사유능력, 전체 그림을 그리면서 새로움을 상상하는 능력, 분석하고 해석하는 능력, 생각하면서 문제의 돌파구를 찾아내는 능력은 그냥 길러지지 않는다. 여기에 하나를 더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바로 과거를 돌아보고 확인하고 읽는 역사가의 눈이다.

여기 한 사람이 있다. 혼자서 수학교과서 연구소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개인 농장에 연구소를 세워 우리나라의 수학책을 모으고 관리한다고 한다. 오래된 자료를 수집하고 보관하는 일이 만만치 않고 특히 고서의 경우 온도와 습도에 약하다 보니 혼자서 하는 게 벅차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고자 하지만 선톤 손 내미는 곳이 없다. 10월 5일 교과서의 날을 맞아 언론에 올라온 기사를 보면서 이 안타까움이 과거와 현재를 도외시하고 미래만 바라보는 우리의 전반적인 시선과 닮아 있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이상한 미래에 아첨하느라 제대로 된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다. 문학사의 중요한 자료들, 원고들이 방치되고 썩어가고 있다. 계간지 발간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시집 초판본이 어떠한지, 우리의 산 역사가 들어있는 낡은 책과 초라한 원고를 들여다보지 않는다. 디지털화도 원본 자료가 있어야 가능한데 말이다. 외국에서는 요리법을 적은 시인의 메모지까지 모으고 있는데 말이다. 흥범도 장군 같은 과거의 독립 운동가를 해석하는 일도, 당대의 시대적 정황 안에서 바로 보지 않고 지금의 정치적 해석에 따라서 쉽게 단정한다. 일관성 없는 과거 지우기다. 과거는 나의 편리에 따라 뒤집히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4차 산업혁명 시절에 빅 데이터 분석 및 활용이 중요하다는 것은 다 아는 얘기지만, 미디어의존도가 너무 높아지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상상하고 질문하는 능력,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 걸으면서 주위를 살피고, 계절을 호흡하는 감각도 같이 키워야 한다. 역사가의 눈으로 면밀히 과거를 검토하고 우리가 지나온 길을 돌아보며 문제를 진단하고 내 옆에 누가 있는지를 살피는 일, 공생과 연대를 위한 가치 교육이 더욱 절실하다.

우리는 어떤 미래를 상상하는가? 기후위기, 인구절벽, 빈곤과 차별이 깊어가는 시절에 부자 감세를 통해 60조원 세수 결손이 야기된 상황에서 정부는 복지며 연구 등 당장 눈에 띄지 않는 부문에 들어가는 지원을 모두 줄였다. 옆을 돌아보지 않는 사회에서 사람들은 고립된 공간에서 죽어간다. 기초 R&D예산도 대폭 삭감되어 이대로라면 3년 뒤에는 기초연구 분야의 교수가 절반만 남게 될 거라 한다. 비교적 잘 구축되어 있다고 생각한 의료안전망도 재원이 현저히 줄어들어 위태로운 상황이다. 의료 민영화를 비롯하여 전기, 가스, 철도 등 공공분야가 민영화된다면 자본과 이윤의 논리 속에서 일상의 삶은 그만큼 더 가팔라질 수밖에 없다.

개인이 각자도생의 사회 안에서 몸부림치고, 국가는 강대국 중심의 각자도생으로 치닫고 있는 이 시절에 그 어떤 대안적 질서에 대한 고민 없이 우리가 외치는 미래란 무엇인가? 사회든 국가든, 공생과 연대에 대한 고민 없이는 어떤 것도 불가능하다. 지구는 단 하나이기 때문이다. 지나온 과거를 소중히 살피면서 현재의 우리를 서로 돌아보기, 아파도 괜찮고, 좀 늦어도 괜찮은 사회를 만들어 가기, 우리가 준비할 미래와 혁신은 바로 이런 것이다.

·정은귀(영미문학문화학과 교수, 외대학보 편집인 겸 주간)

외대학보는 독자의 의견을 통해 빛이 납니다.	
독자기고	'지난호를 말하다'에 응모해주신 분
소정의 선물	독자기고를 해주시는 분들에게는 소정의 원고료와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기사제보	http://www.hufspress.net/ e-mail : 05subin@hufs.ac.kr

외대 학보

창간 1955년 4월 11일
발행인 박정운
편집인 겸 주간 정은귀
편집장 조수빈
제작 artel | 인쇄 중앙일보
학생기자실 (서울) 02-2173-2504 / (글로벌) 031-3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국제학사 401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외대로 81 학생회관 211호
www.hufspress.net

소통의 대가(大家)

전종우 교수를 만나다

미디어가 발전하고 여러 알고리즘이 등장한 현대 사회에서 대중들은 편향된 정보를 접하기 쉬워졌다. 이에 따라 사람들 사이에 소통이 단절되고 사회적 갈등은 심화되고 있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부에선 이러한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단국대학교(이하 단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전종우(정책과학·신문방송학 89) 교수는 서로 간의 소통이 어려워진 우리 사회에 소통의 가교를 놓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소통 전문가 전종우 교수를 만나보자



Q1. 우리학교 신문방송학과에 입학하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당시 신문방송학과는 상당히 선호되는 학과 중 하나였습니다. 또한 고등학생으로 재학하던 시기부터 방송이나 광고 분야에 관심이 많아 신문방송학과를 선택했습니다.

Q2. 플로리다 대학교(University Of Florida) 대학원에서 광고 기획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당시엔 지상파 방송 감독의 영향력이 강했고 촉망받는 직업이기도 했어요. 이에 저도 방송국에 취업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IMF 외환위기의 늪에 빠진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고 고정된 급여를 받는 회사원보다 유학을 준비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미국의 대학원에 진학하면서 광고의 매력을 발견했고 졸업 이후엔 광고대행사에 취직했죠.

Q3. 신문방송학과는 졸업 후 언론인이거나 마케팅 전문가 등 여러 진로의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이 중 교수가 되기로 결정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시 방송사는 차상급만 돼도 연봉 1억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광고나 방송의 경우 기자와 마찬가지로 분명히 매력적인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의 업무가 정말 고된 편입니다. 야근은 예사일이고, 그래서 좋아하는 일을 편하게 해보자는 생각으로 교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학자가 된다면 정신은 힘들어도 몸은 덜 힘들거요. 광고 업계에 종사하면서 광고에 대해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미디어나 광고를 학문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또 교내 벤처 기업의 대표이사로 일하고 있기도 하죠. 이러한 경험들로 축적된 현장 경력과 학계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Q4.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의 교수가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교수가 가져야 할 세 가지 덕목이 있습니다. 우선 가르

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의 준비는 정말 오랜 시간과 노력이 드는 일거든요. 그리고 연구도 정말 중요합니다. 또 봉사의 덕목도 있죠. 여기엔 교내에서의 봉사도 물론 포함되겠지만 지식인으로서 지역 사회에 봉사와 정부 심의위원 등을 역임하며 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학자로서의 지혜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이 세 가지가 보통 교수를 임용할 때 고려되는 사항들입니다. 우리나라는 공정성에 특히 민감하기에 연구 업적이 중요합니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는 실용적인 학문을 다루는 학부이기에 현업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앞서 언급했던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의 학문 분야에 연구업적을 많이 쌓는 것이죠.

Q5. 여가 시간은 주로 어떻게 활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요즘은 오페라나 뮤지컬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번에 에든버러(Edinburgh)에서 공연 축제를 즐기고 왔습니다. 특히 런던으로 뮤지컬을 자주 보러 가는 편이에요. 그리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영향으로 여가 습관이 다소 변했는데 최근엔 넷플릭스(Netflix)나 디즈니 플러스(Disney Plus)나 왓챠(Watcha) 등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해 다양한 콘텐츠를 보고 있습니다. 예전엔 골프도 쳤지만 시간적·금전적 지출이 너무 많아 요즘은 잘 즐기지 않습니다.

Q6.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전공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어떤 자질이 요구되는지 궁금합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통상적으로 부모님들은 주로 안정적인 직업이나 진로를 추천하죠. 하지만 안정성만 추구하다 보면 발전하기 힘들습니다. 그리고 예전엔 코딩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학생들에게 코딩 교육을 받기를 추천했지만 AI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보니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목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안목을 키우기 위해선 창의적인 작업이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의적인 작업은 마라톤과 같죠. 지적인 체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는 궁극적으로 독서를 통해 성장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책

을 읽는 사람들이 결국 성공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콘텐츠를 개발하는 능력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AI가 할 수 없는 인간만의 심층적이고 보다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어야 해요. 문과라서 비판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특수성을 계발하려는 노력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Q7. 훌륭한 기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요?

옛날처럼 기자들이 알력 다툼을 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예전엔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선 취재할 때 기싸움에서 밀리지 말았어야 했지만 요즘은 감각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신문을 포함한 인쇄 매체는 현재 쇠퇴하는 추세입니다. 요즘은 틱톡(Tik Tok)이나 쇼츠(Shorts) 같은 짧게 가공된 단발성 콘텐츠를 주로 소비하죠. 그런 매체를 접목한 기사는 단연 최고의 콘텐츠 중 하나입니다. 오늘날의 기자에겐 이런 콘텐츠 생산 능력이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훌륭한 영상 제작자는 양질의 기사를 쓸 수 있습니다. 매체를 뛰어넘는 기사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Q8. 훌륭한 언론인인 되기 위해선 글쓰기 능력도 중요합니다. 좋은 글을 쓰기 위한 방법이 있나요?

답은 하나입니다. 좋은 소설을 쓰기 위해선 많이 읽어야 하죠. 좋은 기자가 되려면 남의 기사를 많이 봐야 합니다. 광고도 좋은 카피(Copy)를 제작하려면 우선 카피를 많이 봐야 합니다. 책을 많이 보세요. 좋은 글을 생산하는 능력을 키우려면 책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이에 더해 기자는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중요해요. 단순한 사실만을 놓고 보더라도 한 사건에 대한 해석은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균형 잡힌 시각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조금 진부하지만 우리 사회에 대한 애정도 많아야 합니다. 또한 토익(TOEIC) 같은 회사가 요구하는 기본적인 능력도 필요하죠.

Q9. 교수 생활을 하면서 느낀 직업적인 고충이 있나요?

최근에 느끼는 고충은 교수와 학생들과의 관계가 예전

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느낄 수 있었던 끈끈한 유대가 사라졌죠. 그것이 긍정적인지 아닌지는 개인의 가치판단에 따라 다르지만요. 예전엔 군대문화가 지배적이었는데 요즘은 다 서로 존대하는 문화가 보편화됐죠. 개인 간의 사회적인 예의 차원에서요.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새로운 기준에 적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Q10. 교수님의 인생에 있어 궁극적인 가치나 목표 같은 게 있으신가요?

제가 정년이 10년 정도 남았기에 은퇴 준비를 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까지 누군가의 아빠나 남편 그리고 교수로 살았는데 이제는 저 자신으로 살고 싶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젊을 땐 연구도 많이 했지만 요즘은 후학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경험을 통해 후배들에게 나아갈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죠. 후배들이 학계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사람으로 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Q11.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교수나 연구원으로 활동하길 희망하는 후배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예엔 유학이 필수였지만 요즘은 우리나라 학계가 미국에 비해 크게 뒤쳐지지 않으니 더는 필수라고 보기엔 어렵습니다. 석사 학위만을 가지고도 그 분야에서 정상에 오른다면 교수가 될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 분야에 대해 논문 등 연구 실적을 많이 쌓고 현장 경력도 겸비할 수 있으면 더욱더 좋죠. 물론 교수가 될 확률을 높이려면 해외의 좋은 대학에 유학을 가는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학문에 있어 자기만의 독보적인 입지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김도현 기자 07dohyun@hufs.ac.kr

출처 : 독립조사기관, 2022년 전체 매출액 기준

전 세계 판매 1위* 커피머신
여러분의 일상에 특별함을 선물합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한국의국어대학교
전용 특가 링크

http://www.ipcltd.co.kr

(주)아이피씨 대표이사 김계형 76(SW) 02-566-2611